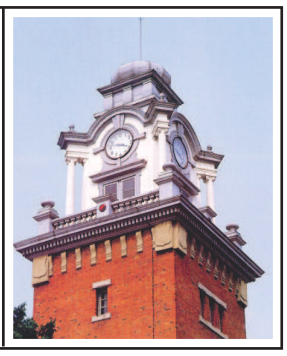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24년 1월 20일 | 서울大學校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 제51권 1호

5501 Merchants View SQ, #810, Haymarket, VA 20169
Tel: (516) 365-5500
snucmaa@yahoo.com

발행인: 田璟培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盧英一 徐 亮 羅斗燮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晳

www.snucmaaus.org

신년사

회장 전 경 배 (75, 남가주)

존경하는 북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희망과 함께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전쟁과 기후 변화,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험난한 고비를 거치면서도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별일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보다 나은 환경에 우리가 살게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북미주 동창회에서 주관한 매해 열리던 학술 대회가 올해를 기점으로 격년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술 대회가 없는 해에는 Topic을 정하여 mini 학술대회 겸 모임을 Zoom meeting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별 동창회 대면 모임을 북미주 동창회에서 전국으로 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창회 지부가 있는 타 지역으로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그 날짜 맞추어 참석하시면 친구, 동문님들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동문님들께는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북미주 동창회에서 새로운 주소록을 발간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으로 서윤석 편집장님을 필두로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북미주 동창회의 차기 회장이신 남명호 동문과 임원들은 모국 동창회, 모교 학장실과의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북미주 동창회 운영에 헌신하시고 계신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기운이 넘치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사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김명원(68) 화백의 갑진년 신년 그림

신년사

편집장 서 윤 석 (68, 버지니아)

2024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푸른색 용이 승천한다는 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계탑 편집위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시로 들어오는 원고를 청탁하고 정리하고 교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동문들간의 소통을 돕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두 가지 더 중요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9년간 미루어 왔던 주소록의 발행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광고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2024년 Directory를 금년 봄에 편집과 인쇄(서울에서)를 끝내고 6월 중순까지 여러분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20년간의 미주 동창회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일 것이며 후배들에게 전할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 미주 동창회가 1972년 출범한지 52년이며 By-laws의 변동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 회장의 1년 연임보다는 2년을 임기로 하고 그에 따른 회칙개정이 처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 교정된 내용을 새 주소록에 싣습니다.

둘째로 금년 7월이면 시계탑 발행 50주년 기념이 됩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한글 신문입니다. 노용면(55) 초대 편집장님이 시작하여 현재 2024년 7월이면 만 5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계탑은 보통 신문과 달리 특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인생 체험, 경험담, 문학, 예술, 의학, 철학, 역사가 들어있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신문입니다. 또한 2016년 44대 회기부터 지난 7년간은 주광국(68), 남명호(81), 송경민(2009) 동문들이 이어오는 우리 Website (snucmaaus.org)에 시계탑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늘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자축해야 되는 해가 됩니다. 다음 Virginia에서 열릴 것으로 생각되는 Medical Convention 때에 같이 50주년 기념식을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지난 3년간 COVID-19판데믹으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인내심으로서 이겨내고 현대의학과 국내외 의료인들의 덕택으로 생존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동창들의 모임도 차츰 전과 같이 회복되어 Medical Convention도 신임 회장단에 의하여 전처럼 재개될 것으로 압니다.

이번 주소록 발간을 위하여 성금을 보내주신 김성환(71), 방준재(70), 강창욱(61) 님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계탑에 옥고를 보내주신 김해암(58), 이덕숭(60), 이회백(61) 선배님들과 온기철(71) 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소록 발간에 제일 먼저 힘이 돼주신 이태안(67), 홍광신(68), 신용계(68), 서인석(73), 한승신(76), 님과 권정덕(64) 선배님 내외분, 모든 지역 동창회장 여러분, 또 한기현(63) 선배님을 비롯하여 각 학년 동기회장 여러분께 모든 편집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계탑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독자 여러분! 금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NUCMAA Research Grant Award 신설의 배경 및 취지

SNUCMAA 동문님들께 알립니다!

SNUCMAA는 현재 다수 동문들의 고령화와 새로운 젊은 회원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현 전경배 회장단은 미주 내 젊은 동문들의 미충족 수요를 반영하고, 이들 젊은 동문들의 미주 내 정착 및 학계로의 성공적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SUNCMAA Research Grant Award를 신설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1976년 이후 미주로 진출하는 동문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의학 발전, 그리고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미국 내 수련의 진입 및 취업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는데, 현재 SNUCMAA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1980년 이후로는 한 학년당 미주 진출 동문 숫자가 10명 이내에 머물고 있으며 한 명도 미주에 진출하지 않은 학년도 여럿입니다.

많은 서울의대 졸업생들이 미주 진출을 선망하면서도, 이들은 또한 졸업 후 외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여러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진출 이후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한국에서의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선뜻 미주 진출에 도전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한 학년당 10-20명의 동문들이 여전히 미주 진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꿈을 키워 나가고 있음을 차기 회장인 남명호 동문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 동문은 지난해 한국 방문 중 젊은 동문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주 진출을 꿈꾸는 모교 동문들의 상당수가 훌륭한 연구(Research)를 해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주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훌륭한 의학 연구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한국의 연구 여건이 미국에 비해 열악한 점들이 많아서 미주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었으며, 남명호 동문께 미주 진출과 관련한 자문 및 조언을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남 동문은 여러 SNUCMAA 회원들과의 논의 끝에, 우리 SNUCMAA 조직이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미약하였던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SUNCMAA Research Grant Award"를 설립함으로써 많은 동문들의 미주 진출에 도움이 될 발판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현 회장단에게 전달했습니다.

현 회장단은 남 동문의 제안을 깊이 숙고하였으며, 비록 현재 동창회 여건이 녹녹치 않지만 그래도 주저하기보다는 실행에 나서는 것이 SNUCMAA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전폭 공감한 한승신 동문 (35대 동창회장 역임)이 이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2025년부터 매년 5만 불씩 동창회에 기부금을 내주시기로 약정하였기에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rant Application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계탑이나 동창회 Web site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 회장단은 더불어 추가적인 여러 다른 활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미주 동문들과 한국 동문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학 연구를 보조하기 위해 "한-미 공동연구 기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남 차기 회장께서 오는 2월 한국 방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장님 및 (한국) 동창회장님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모교 의과대학 3, 4학년 학생들이 미주 임상 실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여 그들의 안목을 넓히고 미주 진출의 꿈을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학년당 3-5명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 (1인당 약 $ 2000.00)을 하는 것도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SNUCMAA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더욱 힘차고 새롭게 성장, 발전하는 희망찬 SNUCMAA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SNUCMAA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기금 마련에 여러 동문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2차 이사회 • 대의원회 초록

2024년 1월 13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Zoom 화상회의

Zoom 참석:

채규철(59) 김한종(62) 김태웅(63) 최영자(66) 이건일(68) 서윤석(68) 주광국(68)
김성환(71) 강유구(71) 서인석(73) 전경배(75) 한승신(76) 남명호(81) 김자성(85)
강민종(91) 박은경(00) 허원제(02) 박혜성(06) 이익재(08) 송경민(09)
김영애(김성환 부인) 죤 백(fund manager) 제이미 김(사무장)

Proxy:

이만택(58) 최종진(59) 최홍락(60) 강창욱(61)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최순채(66) 신규호(68) 김일영(71) 조병선(71) 이원택(71) 최영철(71) 이성길(71)
고용규(73) 나두섭(73) 한민우(75) 안우성(76) 최광휘(76) 차민영(82) 이선규(89)
임경빈(99) 김태곤(01)

1. 2024년1월 13일(토요일) 동서부 zoom 화상회의로 이사회가 김성환(71)사회로 시작 됨.

2. 지난 이사회 초록(2023년 9월 23일)을 요약하여 읽은 이후 참석 전원의 동의를 받고 대의원회의 각 부서 보고가 이어짐.

3. Treasurer(85 김자성)의 재무 서면 보고:

2024년 1월 10일 현재의 은행 잔고 액수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 현재까지의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함.

4. By-laws committee report(73 서인석, 76 한승신):

서인석(73), 한승신(76), 서귀숙(84), 박계영(90), 강민종(91) member로 지난 이사회를 통하여 제의한 By-laws Amendment에 대한 사안에 승인을 요청함.

(1) 대의원회 구성에 대하여: Regional chapter 회장들과 각 동기대표에 대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에 회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active한 활동이 현재 없어라도 유지를 하고, 숫자도 적고 활동이 없는 chapter는 대의원회 구성원에서 제외를 하여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데에 동의가 있었음.

각 동기대표 또한 졸업 년도 별 미주에 온 숫자가 적은 동기에 대해서는 몇 동기를 합쳐서 동기대표를 구성하여 대의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대표를 형성하자는 의견에 동의가 있었음.

(2) 대의원회 구성원인 전 회장의 참여는 없애기로 건의하여 동의 하였음.

(3)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에서 매 회기 갖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개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이사회 2번과 대의원회 2번을 기초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같은 날 이사회를 마치고 대의원회로 진행을 하여 승인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 하였음.

(4) 각 committee meeting 이후 Minutes를 만들어야 한다.

(5) 총무는 회의 날짜 2주 전까지 대의원회 명단을 알려야 한다.

(6) 대의원회의 정족수는 전체 대의원회 구성원의 1/3을 넘겨야 한다.

Regional chapter와 학년대표 세부사항은 새 회장단에 일임하고, 그외 개정된 By-laws 사항들의 대의원회 승인을 요청하여 동의와 제청이 있었음.

5. Finance committee report(71 김성환):

2023 회계연도의 세금보고 준비는 한갑수 회계사가 2024년 2월에 준비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함.

6.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 (죤 백 fund manager, 71 강유구)

-AXA lifetime payment 올 해 받은 총금액과 특별투자 15만불에 대한 이자 금액과 원금을 발표 함.

-2023년 지속된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치가 하락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었으나 금리 인하 예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fund manager의 보고가 있었음.

-장학기금 위탁은 그대로 하되 그 외의 투자로 Allianz의 index를 보이며 동창회 기금을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이 투자로 일부를 넘기는 것에 대한 fund manager의 제안이 있었음.

-매 회기 1만불과 이자에서 장학금 2만불을 넘는 액수가 다시 fund로 보내지는 것이 회기 말 인데, 동창회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는 1월에 check을 보내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음.

- 현재 동창회의 은행 잔고에 무 이자로 있는 대신에 2024년 7월에 시작되는 차기 회기부터 위에 제시한 특별 투자로 Scholarship fund로 들어온 것은 옮기는 것에 동의와 제청이 있었음.

7. Scholarship committee report(01 김태곤, 08 이익재):

멤버: 서인석(73), 이선희(81), 강민종(91), 김태곤(01), 조수정(03), 이익재(08)

(1) 2023 가을학기 미주교포 자녀 9명에 대한 장학생에 대한 1차 장학금이 전달 되었고, 감사 편지를 받아서 donor와 편집위원회와 Website committee에 전달이 되었으며 Progress report를 받은 이후에 2차 장학금이 발송될 예정임.

(2) 김일영(71) 동문께서 10만불을 scholarship에 donate 하시어 사용처는 매 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의대생 혹은 의대 지망 미주교포 자녀에게 각 $5,000씩 2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밝히시어, 2024년부터 김일영 장학생 2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3) 김태웅(63) 동문은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미주교포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확인을 하였다.

(4) 모든 donor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창회는 취지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8.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report: (06 박혜성, 91 강민종):

이번 시계탑에 현재 추진 중인 Research & Fellowship의 추진 계획의 필요성을 전 회원께 알리며 새로운 납입서에 이 항목 추가를 할 것임.

젊은 미주 동문이 병원에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종자돈을 support하는 것으로 현재 두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5년부터 한승신(76) 동문이 매년 5만불씩 기부를 약정하였다. 1명 혹은 2명의 젊은 동문을 선별하여 지원을 research grant 혹은 Academic career development에 하는 것으로 상세 방법은 계속 의논 중이라며 도표로 제시하였음.

다른 계획은, 한미 동조로 한국 본교 동아리에서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학생 지원과 연구 추진금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남명호(81) 차기회장이 2024년 2월 한국 방문에서 할 계획이다. (1) 모교와 논의 중으로 MExIM 동아리 학생에게 미주 의료계 견문 보조금으로 5만불 지원 (2) 한미 공동 연구기금(정식 명칭은 추후 결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 중이다.

9. Green Project report(99 임경빈의 PPT를 91 강민종 발표):

-Scholarship committee와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와 연계하여 extended GP meeting을 통하여 미주 내의 Green Project member들의 모임을 활성화 계획으로 현장 모임과 on line모임에 대한 세부사항의 PPT 발표가 있었음.

-지역별 젊은 동문의 현장 모임 지원에 $4,000과 online 2번의 모임 지원에 $1,000으로 총 $5,000 연간 지원을 요청하여 전원 동의와 제청이 있었음.

10.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명부는 2024년 발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편집을 거친 후 2~3개월 후 한국에서의 인쇄할 계획이며 오늘 회의에서 승인된 By-laws와 동창회 연혁 등도 게재될 것임.

-2024년 7월이 되면 시계탑의 50주년을 맞아 다음 번 학술대회에서 시계탑 50주년 기념 행사를 예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념행사에서 역대 편집장들의 노고를 회원 모두에게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다 하였음.

-시계탑 편집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 편집위원의 노고와 원고를 투고해 주시는 회원들께 감사 인사를 하며, website committee와 함께 모든 동문의 소식은 받는 대로 시계탑에 올려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계탑은 계간이므로, 최신 소식들은 Website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1월호부터 회비 납입서에 Research and Fellowship donation category를 넣기로 하며, article로 전체 회원에게 알리겠다고 하였음.

11. Charity report(66 최영자, 85 김자성):

-가장 큰 활동으로 Africa에 2군데 우물 지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1966년 동기회에서 1개 지원, 서윤석(68) 부부 1개 지원, 최영자(66) 1개 지원으로 총 5개의 우물 지원이 되어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오염이 안 된 물을 마시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발표함.

-우물지원 사업 외에 아프리카 빈민층 초등학생의 점심 지원에 $2,500 지원 요청에 동의와 제청이 있었다. 이에 동참을 할 회원은 최영자(66),김자성(85) 위원장에게 문의하던가 동창회 Website를 참고할것을 권고함.

12. 전경배 회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 코비드 사태 이후 매년 개최되던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가 격년으로 열리게 되는데 Gap year에는 zoom을 이용하여 Scientific session은 할 계획임.

In person으로 만남은 활성화 된 chapter의 모임에 그 지역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참석을 원한다면 참석비 지원을 동창회 차원에서 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창회의 방향 전환에 유동적인 방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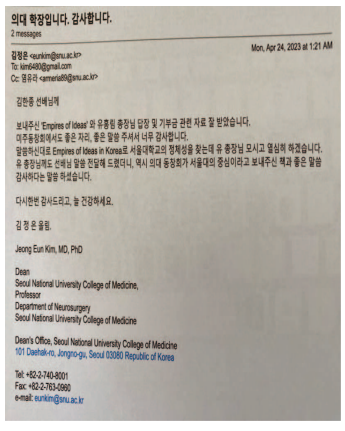
참석자의 사진 촬영으로 이사회가 마무리 되었다.

Will(유서) 작성과 모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Article III : Specific Gifts

3, 2 REQUES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Seoul, Korea, provided it is in existence at the time of death. I bequeath ten (10%) percent of the amount in 401K on the date of mt death.

지난 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김정은 모교 학장님과 김한종(62) 동문 나눈 서신을 참고로 같이 올립니다. 실제로 그 내용의 Will 시행이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미주에서 직접 서울대학교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이만택 선배님 담당)으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 학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 messages
Mon, Apr 24, 2023 at 1:21 AM
김정은 <eunkim@snu.ac.kr>
To: kim6480@gmail.com
Cc: 엄유라 <ameria89@snu.ac.kr>

김한종 선배님께

보내주신 'Empires of Ideas' 와 유홍림 총장님 담장 및 기부금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주홍장회에서도 좋은 자리,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Empires of Ideas in Korea로 서울대학교의 정체성을 찾는데 유 총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 총장님께도 선배님 말씀 전달해 드렸다니, 역시 의대 동창회가 서울대의 중심이라고 보내주신 책과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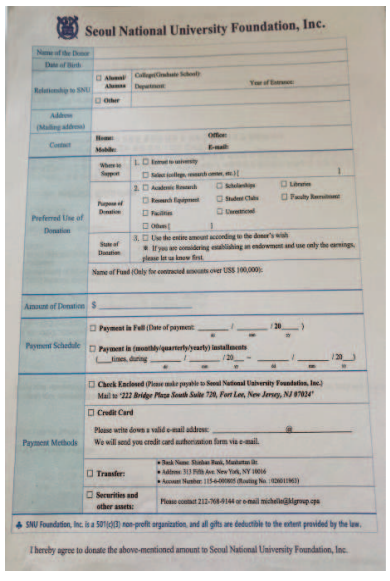
김 정 은 올림.

Jeong Eun Kim, MD, PhD

D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an's Off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Republic of Korea

Tel: +82-2-740-8001
Fax: +82-2-763-0990
e-mail: eunkim@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ame of the Donor
Date of Birth
Relationship to SNU: ☐ Alumni/ Alumnae (College/Graduate School): Department: Year of Entrance: ☐ Other
Address (Mailing address)
Contact: Home: Office: Mobile: E-mail:
Preferred Use of Donation: Where to Support: 1. ☐ Enroll to university ☐ Select (college, research center, etc.) [ ] 2. ☐ Academic Research ☐ Scholarships ☐ Libraries ☐ Research Equipment ☐ Student Clubs ☐ Faculty Recruitment ☐ Facilities ☐ Unrestricted ☐ Others [ ]
Purpose of Donation
State of Donation: 3. ☐ Use the entire amount according to the donor's wish ※ If you are considering establishing an endowment and use only the earnings, please let us know first.
Name of Fund (Only for contracted amounts over US$ 100,000):
Amount of Donation: $
Payment Schedule: ☐ Payment in Full (Date of payment: _____ / _____ / 20____) ☐ Payment in (monthly/quarterly/yearly) installments ____ times, during _____ / _____ / 20____ ~ _____ / _____ / 20____
Payment Methods: ☐ Check Enclosed (Please make payabl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Mail to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ew Jersey, NJ 07024' ☐ Credit Card Please write down a valid e-mail address: _____@_____ We will send you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 via e-mail. ☐ Transfer: ▸ Bank Name: Shinhan Bank, Manhattan Br. ▸ Address: 313 Fifth Ave. New York, NY 10016 ▸ Account Number: 115-6-009005 (Routing No. : 026011983) ☐ Securities and other assets: Please contact 212-768-0144 or e-mail michelle@hlgroup.ops
♣ SNU Foundation, Inc.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and all gifts are deductible to the extent provided by the law.
I hereby agree to donate the above-mentioned amoun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Will 작성에 대한 문의나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는 동문들은 김한종(62) 동문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kim6480@gmail.com 전화: 908 342 5560 (김한종)

남가주 지부 신년 모임 3월 16일

남가주 지부 신임 김자성 회장을 중심으로 오는 3월 16일 신년 인사 모임이 있습니다. 남가주 회원, 전 미주동창회원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전경배 드림

필라델피아 지부 소식

필라델피아 지부 회원들이 지난 11월 18일 버지니아로 이주하는 배성호(71, 목사) 동문의 환송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11명의 동문들과 부인들 총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왼쪽 앞 줄로 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희근(60, 만년 총무님), 배성호(71), 김영남(68 새 지부 회장), 안세현(68), 한혜원(61,가려서 안 보임), 김미례(76), 이연찬(56), 최무웅(67), 한수웅(61), 김훈(71), 김영욱(60)

워싱턴 버지니아 지부 소식

지난 1월 20일 토요일 정오 Centreville 강촌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있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37명이 모여서 선후배간의 정을 표했다. 특히 차기 북미주동창회장인 남명호 동문이 앞으로 미주동창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조와 이해를 구했으며 서윤석 편집장의 2024년 새 주소록과 시계탑 창간 50주년기념 책자 발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주광국 동문이 (사회와 홍보), 신용계 동문이 (재무)를 맡고 있으며 미세스 주광국, 김진홍을 포함하여 아홉명의 68년 동기 부인들이 모임을 위하여 수고 하였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서울동창회에서 발간하는 2024 갑진년 달력을 받았다.

참석한 분은 한달수(59) 서휘열(61) 진창건(61) 고영희(63) 이종두(63) 유달(67) 김철(68) 김진홍(68) 김주평(68) 김희주(68) 서윤석(68) 신용계(68) 주광국(68) 김병오(69) 박수웅(69) 박동수(71) 조병선(71) 배성호(71) 유영준(74) 배영훈(75) 박인영(75) 남명호(81) 등 22명 동문들 또 그 부인들과 Jamie Kim 사무장을 합하여 총 37명이 참석했다.

버지니아 지역 68년 동기 골프 모임 - 2024년 1월 2일

김주평 김희주 김진홍 주광국

김영덕 신용계 서윤석 김철

58년도 동문 졸업 65주년 기념 여행

12회(58년도 졸업) 동기들이 졸업 65주년을 기념 행사로 Caribbean Cruise를 지난 12월에 다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일정 취소가 많아져서 결국 김부근, 류치열, 이만택 세 분만이 다녀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아에 거주하시는 류치열 동문께서는 얼마전 open heart surgery를 Mayo clinic에서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따님이 이번 여행에 동행하시어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합니다.

박승균(61) 동문의 자제 박준서 (Ed Park) 소설 소개

한국 역사와 인물(李箱 작품 포함)들을 배경으로한 한국말을 잘하지 못 하는 제2세의 Korean-American 작가가 서술한 소설이다.

edPark.com website New/Events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평이 나와있다. 특히 New York Times, LA Times, Publisher Weekly 등 호평이 나와있다. -사진: 작가와 책 표지

정신과전문의 이원택씨 제21회 재미시인상 선정

제21회 재미시인상에 이원택 시인이 선정됐다. 1987년에 창립된 재미시인협회(회장 고광이)는 2002년부터 매년 필력이 뛰어나고 시문학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시인을 1명씩 뽑아 수상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한 이 시인은 2007년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해 '만화경-요지경-무아경-혼미경-신비경-분광경' 등의 문집과 글쓰기 지침서인 '메타-라이팅'을 출판했고, 2012년 '달-흙-홍시' 등으로 서울문학인, '아지트-낡은책상-생일' 등으로 한국문인에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8년에는 미주 펜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번역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2021년에 '미한〈변형〉사전'을 출간했고, 2022년 '미한〈원형〉사전'에 이어 내년 1월 중 '영한〈지구촌〉사전', '영한〈신세대〉사전', '기초〈스페인어〉사전'을 출간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6일(토) 오후 4시 로텍스 호텔(3411 W.Olympic Blvd. LA)에서 있었다. - 미주 한국일보 기사 전문

'고해 (The Bitter Sea)'을 읽고

역사 수필가 온기철(71, 남가주) 동문이 작년에 중국 이민 1세가 쓴 [격동기 중국에서의 성장기]를 번역 출판 하였다. 미국에서 언어학 교수를 한 저자가 1944~1961년 까지의 회고록에 후일담을 보탠 자서전을 *brunch writer로 활약하는 온기철 동문이 평범, 검소한 필치로 펼쳐 나갔다.

언어학자가 쓴 원문이라 번역이 수월치 않았을 텐데, 온기철 동문은 그 시대에 비슷한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의 감정이나 말투를 그대로 반영시켜 우리들의 향수를 달래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다못해 철자나 띄어쓰기까지 그 당시에 쓰던 대로 쓰느라고 노력한 점이(?) 역력했다. 번역자는 후기에서 '인생은 딱 한번 산다 '고 하면서 세상살이에서 chance(기회) 와 choice(선택)의 양면성과 시간과 공간의 소용돌이, 나아가서는 나와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나름대로 '개똥철학'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이 책은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의 40-50세대에 많은 공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그 세대가 돋보기없이 읽을 수 있게 큼직한 활자로 인쇄되어 있어서 전혀 부담이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다.

*주: brunch writer-2015년에 창설된 전산망기지 Kakao Brunch(brunch.kr.co)에서 신진 작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Brunch story에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작가로 한국말로는 '아 ?점 작가' 또는 '실속파 작가?' 라고 번역해 봄직함. - 이원택(71, 남가주)이 읽고나서

구독신청: e-mail (jamessunohn@gmail.com)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장순필(62) 동문: 지난해 11월 25일 별세하셨습니다.
한상호(62) 동문: 시카고에 거주하시다 별세하셨습니다. 고별예배 1월 7일
강영호(63)동문: 남가주에서 거주하시다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일은 1월 25일
조열하(63) 동문: General Surgery 별세하셨습니다.
강창홍(71) 동문: NJ에 거주하시다 지난 11월 23일 별세하셨습니다

김용덕(59) 선배님을 추모하면서

군의관 시절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8th MASH 병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 처음 뵈었습니다. 그 후 서로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내왔으니 지금까지 거의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군요. 형님께서 은퇴 후 이곳 워싱턴으로 오셔서 제가 경영하던 함춘회에 성실히 참여하셨지요. 한동안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후배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뇌가 우수하시어서 경기 중고등학교와 의대를 졸업하시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셨습니다.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하시었지만 그것을 자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형님이 떠나셨으니 참으로 마음이 허전하군요. 그동안 후배를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얼마 있다가 형님을 따라갈 준비를 하지만 끝까지 저도 형님처럼 열심히 살다가 만나 뵙겠습니다. 삼가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서휘열(61)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Dear Friends of YD Kim,

For the past several years, I have written a holiday poem -- nothing fancy, just my reflections on the previous twelve months. This year, I wanted to share my poem with you. Thank you again for coming to our father's memorial and for being such good friends to him and my mother. I send you warm wishes this holiday season and all year round.

A Sentimental Sonnet

We marked a year without my mother,
Her gravestone gray upon the hill.
She lies in peace beside my brother,
A loss that leaves me breathless still.

But life went on, with myriad joys,
Spending time with friends old and new.
Graduation came for both our boys,
Tuition payments finally through.

September days were warm but cruel,
As Dad grew frailer and succumbed.
We held him tightly like a jewel,
Feeling bereft and sometimes numb.

As this year ends, we send you greetings,
For happy days and peaceful nights.
For fewer partings and more meetings,
For all of earth's divine delights.

*김용덕(59) 선배님의 따님 Ann Kim의 인사글과 시(소네트)입니다.

10문 10답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은 얼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가장 결혼생활 중에서 행복하셨을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임상을 하셨나요 전공은? 연구를 하셨나요?
4.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의대 학창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이나, 국민 (초등)학교 시절에
   숨겨놓았던 나누고 싶은 좋은 경험담이나 숨은 이야기.
6. 다시 태어나서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법관, 정치가, 사업가, 예술, 문학가
7. 자녀를 양육하는데 후배들에게 참고가 될 사항이나 추천하고 싶으신
   이야기? 필요하면 물론 자랑이 되어도 좋습니다.
8. 현재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운동?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현 의료시스템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9. 현재 무슨 취미생활을 하시나요? 혹시 종교활동을 하시나요?
10. 동창회와 시계탑 편집위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근웅(67) 동문

1. 1967년에 졸업하고 3년 공군 복무를 마친 후 1970년 6월 25일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허용한 돈이 200달러 이었는데 부모님이 200달러를 더 보태 주셔서 400달러 가지고 떠났습니다.

2. Cleveland에서 인턴을 하는 중에 집에서 연락 오기를 아버님 친구의 따님이고 어머님이 점 찍어 놓으셨다는 신붓감이 뉴욕으로 바이올린 공부하러 가는데 한번 만나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Skylark 차를 몰고 가서 만나 보았는데 마음에 들어 서로 편지 왕래하다가 몇 달 만에 결혼하여 아들 셋 낳고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믿음 좋고 착한 처가 옆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셋이 모두 우리가 사는 남가주 Irvine 근처에 살수 있게 되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시간 많으니까 가고 싶은데 어디나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은 교회(베델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3.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님께서 '너는 의사가 돼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박힌 것 같습니다. 또한 유명한 외과 의사이시고 음악 영화 등 모든 방면에 박식하신 삼촌이 부러웠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일찍부터 먹는 것이 좋고 또한 의사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남에 대한 empathy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년 선배이신 강형욱 선배님이 정형외과를 해보라 해서 그 길로 나섰지요. 저는 워낙에 목수 일을 좋아해서 이것이 제 적성에 꼭 맞았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클리브랜드에서 35년 팜스프링스에에서 10년 살다가 은퇴하여 지금은 얼바인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4. 일생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무래도 군대 훈련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신앙이 돈독한 처를 따라 클리브랜드 장로교회에 나갔다가 성가대 지휘까지 맡게 되였고 그 후 30여 년을 지휘하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혼자 숲속에서 말을 타다가 말이 넘어지며 발목이 말에 깔려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온 16세 소녀를 수술방에서 밤을 새워 상처를 씻고 부러진 뼈들을 맞추어 핀을 박아 치료하여 발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 중년 부인이 되어 아들을 데리고 우리 오피스에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의대 학창 시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과 시절에는 우준균(훗날 나의 처제와 결혼하여 동서가 됨.), 고 최병식과 더불어 셋이서 남한 일주 무전(?) 여행도 하고 서울대, 연대, 이대 의대생들의 모임인 MSS(Medical Student Society)에 join 하여 거제도에 무의촌 진료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거제도는 가난한 섬 이였고 병원은커녕 약국 하나도 없었음.) 그 김에 제주도 한라산까지 갔었지요. 본과 때는 바쁜 본과 생활 틈틈이 동기생인 김영철, 김영곤, 작고한 안돈희와 후배 신규호(68) 고 이규현(68) 등 다섯명이 실내악 연주단을 만들어 연습하였고 64년도 선배님들 졸업식에서 축하 연주도 해드렸습니다. 매년 10월만 되면 의대 정기 연주회로 분주했지요. 음악회 준비하면서 최창식, 정춘근 동기와 더불어 학림 다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진아춘 짜장면 집에도 자주 갔었지요. 또 음악회 기금 모금을 위해 교수님들과 개업하신 선배님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병리학 김온자 선생님이 돈을 주시면서 "이걸로 막걸리 들이나 사서 마셔" 하고 웃으시던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는 시공관에서 열린 연주회 때에 합창 반주를 하는데 무대 뒤에서 슬슬 바람이 불어와 악보가 저절로 막 넘어가서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정필(64, Violin), 고 정유석(64, Cello) 선배님들과 Haydn piano trio도 연주했습니다.

한번은 서울대 모든 단과 대학 대항 음악 경연대회(음대는 빼고)가 있었는데 현 시계탑 편집위원 서량(69, Clarinet), 고 이규현(68, Cello)과 같이 출전하여 Beethoven clarinet trio 연주로 일등을 하였고 커다란 우승 트로피를 받아서 의대 학장실에 기증한 적도 있습니다. 본과 3학년 때는 의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Mozart Rondo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대생이 아닌 음대생 학창 시절 얘기 같지요?

삭막했던 의대 시절에 음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6. 의술 외에 다른 분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한 적도 잠시 있었지만 전문 음악가가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를 거듭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지요.

7. 자녀는 그저 사랑으로 기르면서 물고 빨고 하면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요.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막지 마세요. (막아도 결국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우리 아들 셋이 어렸을 때 모두 바이올린을 배워 Youth Orchestra에서 활약했고 아직도 Classical music을 즐기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아들이 Harvard에 입학하길래 장차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음악가가 되어 LA Phil에 join 한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본인도 행복하고 우리 부부 둘 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아들과 말이 통해서 좋고 또한 막내 덕분에 Disney Hall과 Hollywood Bowl도 가끔 따라갑니다

8. 저희가 사는 집 앞에 The Great Park가 있어서 아침마다 한 시간씩 걷습니다. 올해에는 운동을 좀 더 철저히 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매년 같은 결심이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물으시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9. 저희 부부는 얼바인 베델교회의 셀 목자(구역장)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몇 년 동안 하였고 노인들 상대로 강좌도 가끔 했습니다. 그 밖에는 시간 날 때마다 주로 피아노를 칩니다. 국민학교 때는 바이올린을 좀 하다가 그만두고 중학교 때부터 집에 있는 피아노를 즐겨 치며 배우기 시작했는데 심각하게 열심히 연습한 적은 없습니다. 시간 많은 요즘에 연습 많이 하며 아주 enjoy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연주하기 어려워서 접어 두었던 곡들을 하나씩 꺼내어 반복해서 연습할 때 그 어렵던 곡들이 내 손에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습니다.

10. 시계탑 발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신문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박정일(67) 동문

1. 1977년도 중앙대학교 재직 중 콜로라도 대학 병원에 clinical fellow로 취업이 되어 도미했고 년봉 2만 달러가량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800달러만 갖고 왔습니다.

2. 대학병원 시절 간호학과에서 정문으로 통하는 길에서 한 학생을 지나쳤는데 몇 년 후 그 학생이 내가 chief로 일하던 동 2 병동 ENT 수간호원으로 발령되어 결혼에 이르렀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

3. 저의 어머님이 다니시던 동네 여의사 분이 아들은 소아과 의사를 시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자란 게 동기가 됐지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환자가 좋아지는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병원 시절 노관택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정했던 목표가 40세까지는 유능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40대 이후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랬지요. 들쑥날쑥한 경력을 지나 마침내 진짜 의사로 multi-specialty clinic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 딱 4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의대 입학 후 chief resident까지는 정상궤도였고 군대 3년 후 중앙대학교 조교수까지도 무난했지요. 문제의 시작은 콜로라도 대학 병원 임상 fellow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거쳐 2년 후 세인트루이스 대학병원에 1년 차 레지던트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승진 곡선을 타는가 싶더니 전문의 시험 규정 때문에 일반외과 1년 차 레지던트로 다시 추락 한 후에야 chief resident로 연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문의 시험은 상위 1/3 이내에 들어서 구두시험은 면제되는 눈꼽만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곱절이 넘는 공부 덕에 Asian Cosmetic Surgery란 성형외과 교과서를 내서 한국과 중국어로 번역도 되고 또 수차례 guest 또는 keynote speaker로도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집사람은 지금도 긴 고난의 생활을 되새기곤 하지만 저는 그 죽탕 같은 여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성자였는지 철부지였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군요.

때로는 예기치 않게 한 사건이 인생의 방향을 틀어 놓는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976년 저는 미네소타 대학 교실과 콜로라도 대학병원으로 편지가 오고 가고 하고 있었지요. 대학병원 1년 선배인 김종선 선생님은 미네소타에서 교환교수로 연수 중 다음 기회를 저에게 열어 주기 위해 닥터 Mathog 교수와의 서신 연락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한편 저는 또한 콜로라도 대학병원 임상 fellow 자리에 지원서를 내고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물론 저로서는 임상 기회를 더 선호 하였으나 콜로라도에서는 영 답을 주지 않고 있었고 미네소타에서는 김종선 선생님이 전화 통화로 제가 잠정적으로 accept 되었다며 필요한 서류를 곧 보낼 것이라고 통보를 해 왔지요. 거의 포기한 상태로 1977년 6월까지 마냥 기다리는 중 뒤늦게 콜로라도에서 마지막 순간 accept 되었으니 7월 1일 급히 도착하라는 연락이 왔지요. 마침 그 당시 Gerald Ford 미 대통령이 외국 의사 입국을 전면 중지시키는 법에 sign을 하는 바람에 여권을 받을 수 없어 콜로라도 대학 측이 국무성에 예외 규정을 청원하는 과정을 거쳐 11월에야 여권이 떨어져 5개월이나 늦게 fellowship을 시작하게 되었었지요. 10여 년이 지난 후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김종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Dr. Mathog가 대단히 화를 내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우편배달 과정의 착오로 저에 대한 초청 편지를 제가 받지를 못 했던 것이었지요. 단순한 우편배달 사고가 그 후 나의 47년간의 인생을 철저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는 나만이 아니고 좋던 나쁘던 저희 자식들을 운명까지 180° 다른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저의 삼남은 분명히 세상을 구경도 못 했을 것이고 손녀를 생각하면 더더구나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콜로라도 대학에 채용된 것은 otology fellowship이었는데 대학 측의 필요에 의해 3개 주를 관장하는 인디언 헬스 서비스에 파견되어 otology 외 ENT와 두 경부 외과 전 분야를 포함한 진료 임무가 주어졌지요. 조교수 Dr. Lamkin이 당시 ENT 영역에서 막 진입하고 있던 facial plastic surgery fellowship을 마치고 제가 합류하기 바로 전에 병원에 복귀를 하였지요. 지금은 안면 성형외과가 subspecialty로 인정받아 모든 대학병원에 설치되어 있고 전문의 자격도 부여되고 있지만 당시 facial plastic surgery fellowship은 전국적으로 서너 군데에만 있었던 아주 초창기였지요. Dr. Ronald Lamkin은 정말로 사심 없고 헌신적인 스승이었고 최대 수혜자는 한국에서 뜬금없이 떨어진 박정일이었지요. 7월에 시작하는 펠로십이 6월에야 승인된 이유는 이미 정해졌던 다른 지원자가 갑자기 결정을 바꾸는 바람에 앞서 언급한 편지 배달 사고로 끝까지 버티던 저에게 주었던 것이었죠.

Facial plastic surgery(AAFPRS) board가 처음 시작된 〈다음면에 계속〉

김영철(67) 동문

1. 1972년 미국으로 옴.

2. 중매결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첫 출산.

3. 부친이 의사였고, 의사의 중요한 조건은 의무감을 지키는 것.

외과를 전공함.

4.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생명을 살렸을 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

6. 다시 태어나도 예! 의사가 됩니다.

9. 취미생활은 Golf 입니다.

그 이외 항은 무답.

〈전면에서 계속〉 것은 제가 1983년 ENT Board를 받은 후 5년 후인 1988년이었고 그 당시 첫 board 시험에 응시할 당시 앞자리 옆자리의 응시생들은 학계에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대학에서 facial plastic surgery subsection을 만들고 있던 교직자들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일부는 general cosmetic surgery 분야로 진전하는 과정에 있었고 저 역시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Board 시험에 합격 후 당시 AAFPRS Board Exam 책임자였던 Dr. Bernstein에 의해 2년간 written board exam 출제위원으로 선임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 후 AAFPRS 학회에서 논문 발표 또는 workshop 연사로 참여하면서 저의 분야를 넓히고 견고히 하는데 힘을 다했지요.

Multi specialty clinic join은 저희 성형외과 분야를 개발하는데 거대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클리닉 의사들의 성형내지 재건수술 환자들의 소개와 지역사회의 지명도가 높은 피부과 의사들의 피부암 환자 재건수술 소개와 안과 의사들의 눈 주위 미용 성형 수술 환자들의 소개가 나의 성형외과 발전에 크나큰 보탬이 되었지요. 제가 클리닉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클리닉이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관계로 한인 성형수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구전을 통하여 시카고 밖 심지어는 한국, 동남아에서도 간혹 찾아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sian Facial Cosmetic Surgery라는 책명의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하는 책을 펴냈고 이 영문 자판의 교과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1990년대 대부분은 제가 의과 대학 본과 1학년으로 되돌아갔던 시절이었지요. 당시 인디아나에 대학 임상 조교수로 해부학 교수의 지원을 받아 1년에 4구의 cadaver를 해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체 부검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해부학 교시 이전에 마쳐야 했기 때문에 매년 4개월 정도의 여름은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에 8시간 정도씩 해부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안면신경을 해부하는데 보냈고 oil 페인트로 color coating을 하여 의대생들의 학습에 이용 되도록 하였고 사진도 찍어서 후에 학회 발표와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PRS) journal에 facial nerve mapping 이란 논문저술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요.

Facial Plastic Surgery Clinics of North America에 초청되어 2개의 chapter를 쓸 기회가 있었고 미국 내 쌍꺼풀 수술의 유일한 교과서인 William Chen 저술의 Asian Blepharoplasty의 한 chapter를 맡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asian cosmetic surgeon 중에 제가 선택되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Chapter 저술 의뢰를 받은 다른 한 사람은 눈과 코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동양성형외과를 195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 발전시킨 삼사 명의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인 구 부채 박사였고 그 당시에는 성형외과는 전공 과목도 없던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쌍꺼풀과 코 성형 수술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었지요. Dr. Chen은 첫 장에 Dr. 구와 저의 프로필을 포함 시키는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PRS Journal에 실린 또 하나의 논문은 Z-epicanthoplasty in Asian eyelids였는데 연세 대학교 성형외과 교수진 수명의 공저로 PRS journal에 수년 전에 저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제 논문에 'root'자를 하나 더 부친 나의 논문을 그대로 복사한 논문을 게재하고는 Referece에는 나의 논문을 인용하지도 않았지요. 저는 항의 서한에 표절 사실을 명백히 열거하였고 잡지는 communication page에 이를 게재시켰지요. 그 후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표절 사실을 전 세계 인정한 것이지요. 참고로 이 논문은 Dr. Chen의 Asian blepharoplasty textbook에 게재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쌍꺼풀 수술의 난제 중에 하나인 epicanthal fold 수술 방법을 다룬 것으로 한국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제 이름 그리고 도면과 함께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차츰 좋은 결과를 얻은 환자들의 요구와 성원으로 서서히 두경부를 벗어나 general cosmetic surgery 분야로 접목이 시작됐지요.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surgery(AACS)는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으로 자신의 분야를 넓히려는 성형의들에게 광범위하고 깊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어 왔지요. 십여 년간 academy가 제공한 연수와 클리닉이 제공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으며 지역 병원들로부터 제한 없는 성형수술 privilege를 얻은 이는 아마도 전국에서 제가 유일한 cosmetic surgeon 일 것으로 자부합니다.

AACS에 차츰 깊이 관여하면서 American Board of Cosmetic Surgery (ABCS)에서 executive committee member로 활동하면서 written exam 출제 위원, oral examiner, credential committee chairman 등을 지냈으며 당시 전국에 7개 중의 하나인 cosmetic surgery fellowship program director로 board certified surgeon을 1년에 한 명씩 cosmetic surgeon으로 키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일 주 내지는 1개월씩 저의 clinic을 방문하는 성형외과의 또는 성형외과 지망의들의 교육에도 관여 해왔습니다. 몇 명의 American or Korean board certified plastic surgeon들도 저의 clinic을 방문해서 주로 제가 개발하고 PRS에 게재되기도 한 쌍꺼풀 수술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fellow 중의 한 명은 예일대를 나온 일반 외과 전문의로 텍사스에서 plastic surgery 레지던트로 수련 중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건 수술의 장벽에 부딪쳐 cosmetic surgeon으로 전향한 예가 있지요. 당시 성형외과 지도교수가 제게 직접 전화로 사실을 설명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제 프로그램에 들어온 경우이지요.

해외 활동으로는 한국에서 연세 대학, 백범기념관, ENT 학회 등에서 초청 연사로 그리고 중국 중칭과 광주에서 각각 초청 연사와 keynote speaker로 초청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Z-epicanthoplasty는 앞서 기술된 표절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시술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0문 10답에 답신을 작성하던 중 꽤나 알려진 plastic surgeon's website에 Revisional surgery of the epicanthoplasty라는 제목이 있어 click을 하고 들어갔더니 다음과 같은 인용을 발견하였습니다.

> "Two most popular and well performing epicanthoplasty procedures are called Uchida and Park's method."

로마에서는 liposuction surgery inventor로 알려진 Giorgio Fischer와 함께 Rome Cavalieri Hilton hotel에서의 학술대회를 기획하는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4. 진료실에서 스프린트를 떼어낸 후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광경은 매일매일 수술실로 뛰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성형수술 환자의 봉합 자리에 생긴 dehiscence로 고소를 당해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의료사고 case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해버린 일이 옥에 티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Ski 사고로 사지 마비가 왔다가 회복된 것은 천운이었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겨우 80이 지난 후였고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살아도 그 어리석음은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5.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평범하고 나쁘지 않았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6.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겠습니다. 예로 제시하신 어느 다른 분야로 다시 시작하더라도 역시 해볼 만한 직업들 이지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내가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어느 직업이고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7. 부모로서 저의 역할은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되 자기 자신이 찾아서 채워야 할 부분을 남겨 주는 것이고 실제로 배가 고플수록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자녀들은 더 성장할 여백이 있고 심신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8. 골프, 테니스, 수영, clarinet, 낚시, 어항과 pond care, 정원 가꾸기, motorcycle ride, and flying.

9. 집에서 가끔 불교서적을 읽습니다.

10. 저는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복잡하고 힘든 일을 끊임없이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우현(67) 동문

1. 미국에는 1972년 7월에 왔습니다. 그때는 외환관리 규정에 의해서 현금을 갖고 나오는데 한도가 있었지요. 지금 있는 '와이어'는 없었지요.

2. 제 처의 친구가 제 처에게 말하기를 "얘 저 사람이 널 계속 쳐다본다" 그러드래요. 그 친구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게지요.

3. 지금이, 금년 정월달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어졌어요.

제 오촌 아저씨가 포천에 한의사였지요. 시외버스 타고 심부름 가면 약방에서 진동하던 한약 냄새가 지금도 코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한의과 대학은 없었지요. 그래서 약리학 교실 오진섭 교수님 지도로 '약방문에 감초'라는 감초를 연구한 일이 있었지요. 감초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glycyrrhizinic acid인데 그 분자구조가 glucocorticoids와 비슷해요.

4. 뉴욕 브루클린에 와서 산부인과를 했는데 그건 우연히 떨어진 거고요. 제일 실망스러운 건 마취과를 한 제 동기가 하는 말 "내가 수술실에서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엉터리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였지요.

제가 미국에 오는 게 좀 늦었지요. 그래서 인턴 자리가 없어서 우연히 잡은 게 산부인과 인턴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자기도 산과를 하려고 했는데 양수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싫어서 그만뒀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건 그래".

어린애들 violin recital에서 만난 한 딸애 아버지가 제게 하는 말이 "내 딸이 좋은 violinist가 못되면 그건 네 탓이다" 그래요. 그 애가 난산 끝에 태어난 애였거든요.

6. 저는 의사가 싫습니다. 아니 싫은 게 아니고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할만한 분야가 많은 걸 늦게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7. 많은 걸 보고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도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10. 금년에 제 화두는 "하루가 열흘을 채우고 남게"입니다. 그러면 일 년이 십 년이 넘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미의학사 (최제창 저) 소개

이 책은 초대 미주 한인의학협회 회장 최제창 박사가 1996년 발간한 우리나라와 미주 한인들의 의학역사 서적이다.

선교사며 의사인 알렌, 최초의 미주 한인의사 서재필 박사, 역대 미주 한인의사협회장, 한국 현대 의학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의학자들을 망라한 430페이지의 저서이다.

최제창 박사가 1996년 친구인 장극 박사(장면 전 총리의 동생)에게 주고 또 장극 박사가 김용덕 선배님에 전한 귀중한 책은 고 김용덕 선배님이 2021년 12월 본인에게 생존시 그 보관을 부탁했다. 참고로 초창기의 회장들과 책에 게재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 몇 장을 소개한다.

사진들은 미주한인의학협회 역대 회장단 좌로부터 최제창(1975) ,이광수(1977), 현봉학(1978), 오창열(1979), 이규택(1980), 전화영(1981), 안경진(1982), 오수영(1983), 정내관(1984) 등과 서재필 박사와 그의 부인 뮤리타 여사,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박사 사적 표시판, 당시 미 공관 사택과 알렌 선교사 부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최초 여의사 박 에스터(김점동)와 그녀의 남편 박유산, 닥터 로제타 홀과 그녀의 두 자녀 셔우드와 에디스 마거릿 - 서윤석

73년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 참관기

나두섭 (73, 남가주)

세월은 빨리 흘러간다고 한다. 그것은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이다. 한국 가려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럴 때는 시간처럼 늦게 간다고 느껴지는 것도 없다. 하여간 졸업한 지 벌써 50년이 되었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변해도 다섯 번이나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고국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기생 친구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10년 전에 40주년 행사 때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이다. 그때는 그래도 육십 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칠십 대 중반이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많다. 벌써 세상을 떠난 동기생들도 10여 명이나 된다.

그렇게 흔하게 부딪치던 학교 친구들 이제는 만나기도 쉽지 않다. 쉽게 만날 수 없으니 귀중하게 느껴진다. 나이가 먹어가니 더더욱 그렇다. 기념 모임은 3박 4일의 전라남도 여행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강남 양재역 근처에서 만나서 관광버스를 타게 되어 있었다. 양재 지하철역은 출구 만도 12개다. 정신을 잘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리 알려준 대로 지정된 장소로 갔다. 좀 일찍 갔더니 아직 아무도 안 와 있었다. 여행은 동기생 30여 명 배우자 포함 50여 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중에는 10년 만에 만나는 동기들이 대부분이고 졸업 후 처음 그러니까 50년 만에 만나는 동기들도 다수 있었다. 내가 그들을 알아볼까?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의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던 것이 드러났다. 학교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낯설지 않고 즐거운 일일 줄은 몰랐다.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했었나?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서 "너 나 누군지 알아?"라고 물었다. 그들은 아마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모습은 좀 변했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고 이야기해 보니 옛날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인지 성숙하고 인자해진 것 같아 보였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어떤 여행이든 여행은 즐겁다. 더욱이 못 가보았던 곳을 여행한다면 더욱 새롭고 흥미롭다.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탔는데 한 줄에 좌석이 3개밖에 없어서 아주 안락하였다. 버스 안에서의 대화는 너무 재미있었다. 배우자들이 끼니 더욱 그랬다. 웃음이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러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여수로 출발하였는데 가는 길에 담양에 있는 죽녹원에서 쭉쭉 뻗은 대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듣고 이어서 소쇄원에도 들렸다. 거기에 얽혀진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 배울 것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아울러 그 시대의 정원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어서 그날의 숙소인 여수의 베네치아 호텔에 도착하였는데 시설이나 규모가 어느 나라의 것에도 밀리지 않았고 연회장도 너무 좋았다.

여수항 일출

어느 누구와 앉아도 대화는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은 한려수도의 섬들을 다리로 연결해 놓은 백리섬 섬 길을 지나 낙안읍성을 관광하였다. 낙안 석성도 좋았고 민속마을도 흥미로웠다. 지금껏 많이 서양식 건축물에 노출되어 왔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한국의 전통 양식이 너무나 마음에 남겨지고 나의 정서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된다. 오후에는 해설사와 함께 순천 국가 정원 박람회에서 수많은 화초들을 감상하였고 순천만 습지 투어를 하였다. 갈대도 갈대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그 즐거움을 어디에 비길 수 있으랴? 남도 여행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끼니 때마다 나오는 한국 전통음식이다. 이곳의 음식 맛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다음 날은 해남 대흥사로 갔다. 사찰의 규모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와로 된 지붕의 우아함과 그 밑에 있는 나무의 채색의 정교함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에 케이블카에 올랐는데 정상에서의 전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제주도 한라산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명량해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수영 관광지를 거쳐 운림산방의 남화를 감상하고 진도 쏠비치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과 연회장 규모 역시 어느 나라의 그것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언덕에서 하늘거리며 나부끼던 코스모스 꽃들은 지금도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듯하다. 다음날 국내에서 가장 길다는 목포 고하도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것을 끝으로 서울로 올라옴으로써 남도 여행은 끝이 났다.

10월 20일 금요일에는 모교 방문 행사가 있었다. 대강당이 오랜만에 보아서인지 잘 단장되어 있었고 학장님, 병원장님, 동창회장님 등이 참석하신 가운데 인사말, 발전 기금, 기념품 등의 전달이 있었고 기념 촬영을 한 후에 학교 및 병원 탐방을 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오찬을 끝으로 기념행사는 마쳤다. 학창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교수님들의 강의, 같이 실습하던 기억, 가슴 조이며 치던 시험들, 그리고 학교 안 작은 정원에서 짧은 점심시간에 모여앉아 주고받던 이야기들 이런 기억들은 다른 것들은 잊혀가는 시기가 오더라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겨져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의 서울은 거의 모든 거리가 달라져 있다. 의대도 많이 변해 있었지만 시계탑 건물은 보존되어 있고 그 앞에서 참석자 전원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였다.

그날 저녁 롯데호텔에서 축하 만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남도여행, 학교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기들과 부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큰 성황을 이루었다. 어두운 저녁에 여러 시간을 운전해서 온 분들도 있었고 모두 합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모처럼의 기회에 앞에 나와 하고 싶은 말을 해준 동기들도 있었고 그동안 연마한 악기 실력 또는 노래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동기들도 있었다. 연회 시간은 꿈과 같이 지나갔고 오랜만에 만난 즐거움 그리고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만찬도 끝났다. 앞으로 언제 이런 모임을 또 가질 수 있을까? 이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젊었던 한때에 한 학교를 다녔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기에 언제 만나도 우리의 관계는 여전할 것이다.

이번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과 행사를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준 성상철 회장, 조수헌 총무, 이명철, 전병훈, 김성수 준비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동기생 친구들과 부인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개중에는 몸이 불편한 동기나 부인들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완주해 준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이 있어서 아쉬웠지만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서 다음 기회에 만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참관기를 마치고자 한다.

친구 이경화를 보내며

2023년 11월 2일 오후 2시 30분,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님의 집례로 고 이경화 집사의 장례예배와 하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인과 절친했던 14회 졸업 동기인 정오영 박사의 추모사에 이어 단에 선 저는 고인을 그리는 추억담으로 추모사를 대신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이덕숭입니다. 고인과 저는 69년 전인 1954년에 서울 의대에 입학을 했고 6년간 동고동락한 친구 사이입니다.

대학시절의 고인은 잘생긴 멋진 미남형이어서 별명이 Montgomery Clift였습니다. '몽고메리 크리프트'란 이름이 길다 보니 줄여서 '몬트' 혹은 '몬티'라고 불렀습니다. 대학 졸업반 때의 일로 기억됩니다. 외래환자 실습시간이 있었는데 '몬티'에게 진찰을 받으려는 여대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허약한 노인 환자들뿐이었습니다. 고인과 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같은 성씨를 가진 이(李)씨입니다. 둘째는 미국에 와서 전공과목이 같은 마취를 선택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LA에서 같은 교회에 적을 둔 교인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우리는 나성영락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옛 추억을 더듬으며 희희낙락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특히 매 주일마다 부인과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출석하는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의 효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확고했던 고 이경화 집사님은 지금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참평안을 누리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고 이경화 동기를 먼저 보내면서 슬픔에 잠긴 14회 졸업 동기생 부부….권기홍, 김영환, 김홍석, 박정우, 이덕숭, 정오영, 정인숙 그리고 고 오준철 부인이 장례예배에 참석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덕숭(60 남가주)

고 장순필 동기의 삶의 열정

우리 서울 의대 62년 동문 Dr. 장은 가장 존경받는 마취과 의사로서 활동하시다가 올해 11월 25일 향년 8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한국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 의대 졸업하고 해군 군의관 복무 후 미국 Cleveland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쳐 마취 레지던시를 마친 다음 Cincinnati, Columbus, Ohio와 UC Irvine에서 인자하고 정열이 넘치는 마취과 의사로서 삼십여 년을 수많은 환자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마취과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쓰면서 젊은 마취과 의사들에 모범이 되는데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생활 은퇴 후에는 Spanish 대학 4년을 공부하는 동안 동기 몇 명이 방문했더니 Mrs. 장이 자기 남편 "학교 보내고" 우리 점심 싸 가지고 왔다고 해서 웃음바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로서는 골프 실력이 대단했으며, 우리 졸업 25년 행사 때엔 50여명을 lead하고 entertain 하는데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슬하에는 영부인과 아들 하나에 손녀 두 명이 있으며 우리 모든 동기, 또한 자비로운 혜택을 받은 수많은 환자들은 장순필 명의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 김한종 (62)

안소희 Naomi

(MExIM 17기 회장, 2024년 졸업예정)

1. MExIM은 어떤 동아리인가요?

MExIM은 ‘More Experience in Medicine’의 약자로, 국제 의료/의학 경험을 쌓고자 하는 본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에 만든 학내 동아리입니다. 현재 회원은 총 20명인데, 대다수가 미국에서의 수련이나 박사 과정 혹은 이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공부 팁과 미국에서의 실습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미주 의대 동창회 선배님들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만나는 자리도 갖고 있고요. 원래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이신 동문 선배님들이나 이미 단기 해외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다녀 온 학생들과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었는데, 코비드19 판데믹 동안 만남에 제약이 있다가 드디어 올해 2월에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선배들과의 교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본과 4학년 해외 심화선택 실습도 판데믹 동안 중지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정상화 되었는데, 실습에 다녀온 본과 4학년 학생들이 3학년 후배들을 위하여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동기들이 선택하지 않는 미국 수련이라는 길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MExIM 회원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2. 미국 레지던시 매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을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가게 되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학사편입학 전형을 통해 본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사편입학 전형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2019년까지 4년동안 운영하며 한 학년 정원의 30%를 선발했던 전형입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등 인생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삶에 지쳤던지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컸기에, 의과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대에 다니던 중 여러모로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넓게 주어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통상 한 개 병원의 한 과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동시에 다수의 수련 프로그램, 심지어 여러 과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미국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의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수련을 받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 레지던시 매치에 참여하여 수련 과정을 다시 밟아야만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미국 레지던시에 지원할 때 당장 어느 지역에 정착할 마음보다는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으로 매치에 임할 것이지만, 직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게 주어진 미국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3. 의대 학사 일정은 어떠한가요?

현재 본과 4학년은 137명이 재학중이고, 1-2학년의 경우 3-4학년보다 조금 더 많은 학생이 있어 대략 150명씩 정도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재학생은 예과에서 올라온 학생들입니다. 편입학 제도가 운영되던 때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평균 연령대가 확실히 낮아 졌어요. 학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본과 1-2학년 동안 반을 나눠서 하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업을 대형 강의실에서 다같이 듣습니다. 선배님들도 예전에 그러셨나요? 2학년 말에는 8주 동안 온전히 의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덕에, 쉴 틈 없이 달려온 기초의학 교육과정 끝에 비교적 여유로운 연구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과 3학년 때에는 아홉 가지 필수 임상과목을 4개의 턴으로 나누어 실습을 돕니다. 내과, 외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 산부인과/소아과, 정신과/신경과/영상의학과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실습을 다 돌고 나서 1월에 50학점의 성적이 결정되는 연말고사를 치룹니다. 본과 4학년 1학기에는 학업 부담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덜해요. 여덟 과목을 선택하여 돌고 연중고사를 본 후 국내 혹은 해외에서 선택 실습 활동에 참여합니다. 2학기에는 국가고시 실기 시험 일정에 맞춰 각자 자율적으로 2개의 과를 선택하여 과마다 2주씩 총 4주 동안 학생 인턴으로 일합니다.

4.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수면 시간, 학업,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모두 챙기려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잠은 본1 때에는 공부하느라 5-6시간 정도 잤었는데, 본4인 지금은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서 덜 자요. 호호. 요즘 여유 시간에는 친구들과 성수동 맛집 탐방도 가고, 여의도에 새로 생긴 백화점에도 가고 그럽니다. 저희 학년 분위기는 서로 돕고 참 좋아요. 재주가 많고 특색 있게 즐기는 게 있는 멋지고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요. 연애요? 저는 미국행을 생각하니 연애와는 저절로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도 연애하고 결혼하듯이 동기들 중에서 과 커플(CC)을 포함하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졸업을 앞둔 시기에 식을 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커플들이나 학교가 달라도 같이 미국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부럽기도 합니다만, 저는 미국에 간 후 연애 해야지요!

5. 다른 동아리도 하나요? 주말이나 방학은 어떻게 보내나요?

지금은 집행부 임기가 끝나서 모임에 많이 나가지 않지만, CaSA라는 의대/간호대 가톨릭 학생회 동아리를 했습니다. 본과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진료부장으로서 매주 일요일 성북동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 〈라파엘 센터〉 혹은 명동성당의 〈라파엘 나눔 흠리스 클리닉〉에서 의료 봉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명동성당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본과 3학년까지는 학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말에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밀린 공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진 본과 4학년이 되고 나서는 주말에는 의대 밖 친구들도 만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매치에 성공하려면 되도록 미국 임상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하기에 본과 생활 중 2주 이상의 긴 방학이 주어질 때에는 미국에 가서 observership을 하였고, 방학이 짧을 때에는 국내 여행을 했습니다.

6. 해외 실습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7월 한 달 동안 Columbia 의과대학의 수련병원 중 하나인 New York Presbyterian Morgan Stanley Children’s Hospital 소아중환자실(PICU)에서 서브인턴으로 실습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임의 선생님들, 1년 차에서 2년 차로 첫 PICU rotation을 맞이하는 전공의 선생님들 등 연차가 바뀌는7월이라 그런지 병동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첫 1-2주 PICU의 꼼꼼한 진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면밀했습니다. 9시에 시작하여 보통 12시쯤 혹은 그 이전에 끝나야 하는 회진이 2시 넘어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회진 중 코드 블루도 여러 번 울리곤 했었는데, 저도 서브인턴이지만 예비 전공의로서 담당한 환자가 죽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아기의 죽음 자체도 힘들었지만, 심폐소생술 과정을 여러 번 지켜보아야 했던 환자의 부모님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힘들었던 한 달이었지만 매일 2~3명의 환자를 맡아 회진 때 브리핑을 하고, 급성 호흡부전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호흡음을 수시로 확인한 후 스스로 치료 계획을 세우며 소중한 임상 실습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들도 가장 힘들다는 PICU rotation을 완주하였다고 생각하니 미국에서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나중에 성적을 확인해 보니 Honors가 떠서 무척 좋아했는데, 성적 바로 위에 쓰여 있는 공지를 보니 콜롬비아 4학년 학생들의 80%가 honors를 받는다고 하네요. 하위 20%에 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한데, 학점을 원칙대로 비율에 맞추어 주는 본교와 달리 대다수에게 최고의 성적을 부여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는 콜롬비아 의과대학 학생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7.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어렸을 때부터 10년 계획을 세우고 목표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지금은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현재를 즐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미래를 고화질의 이미지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전공의 수련 이후 어떤 트랙을 밟고 싶은지 어느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지 정도는 고민하고 수련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저를 포함하여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 받으며 즐겁게 일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이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대학병원 의사로서의 삶은 수직관계가 놓여있기에 직종별로 서로 사이가 나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실습을 돌아보면 직업의 타이틀 때문에 발생하는 분열이 학생들에게까지 느껴지니까요. 미국 병원에서도 수직관계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서로 직업 영역을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결정을 하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8.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만 생각해도 앞이 깜깜한데,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울 여유 또한 없는 것이 의대 생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과 생활 4년을 하면서 남들에 비해 뒤쳐지는 제 모습을 보고 자존감이 바닥을 드러낼 때도 있었고, 공부에 잠시 손을 놓고 딴짓을 하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는 순간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잘 버텨서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해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후배님들,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시험에 지칠 때에는 공부에서 잠시 손을 놓고 휴식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완벽한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변에는 지치지 않고 계속 열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놀 때는 실컷 놀면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들도 보일 것이에요. 하지만 사과와 오렌지는 서로 다르기에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완벽한 친구의 모습에 절대로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미래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강의록에서 눈을 떼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겨보세요. 혹은, 인종도 문화도 서로 다르기에 비교하려고 해야 할 수도 없고, 일직선상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미국에서의 삶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9. 미국행을 선택한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매치를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불확실함과 여러가지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매치에 임해야 할지, 아니면 매치 실패라는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동떨어져 다른 길을 선택하였을 때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궁금한 것이 무척 많습니다.

10. 미주 동창회가 MExIM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행을 처음 고민할 때 주위에서 지지와 격려의 목소리보다는 언어/문화적 장벽, 점차 어려워지는 미국 외 다른 나라 의대 출신 지원자들의 매치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미주 의대 동창회 선배님들과 화상 회의를 통한 패널 대화, 한국에 오셨을 때 본교에서 해주시는 강의, 그리고 저희가 4학년 때 미국으로 실습을 나갔을 때 해당 지역에 계시는 선배님들과의 모임 등이 큰 격려가 되었어요. 어렵게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달까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과의 주기적인 멘토링을 통해 저희 학생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시계탑 1월호 편집회 초록

일시: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동부시간)

참가자: 노영일 서윤석 서량 서인석 서귀숙 박은경 황창근사장 제이미 김 사무장 갑진년 로고; 김명원 화백, 졸업 50주년 행사 보고 나두섭 편집위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Directory 2024년에 대한 설명과 창간 50주년 행사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그 기념행사는 학술대회와 함께 하고 2025년초 기념문집도 발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원고가 충분히 들어왔다. 박종희 동문의 원고가 지난 7월호 내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내용이 달라서 그대로 실어도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특히 박 동문은 미주에서 훌륭한 영어시조 교육가로 알려졌으며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노영일 박사의 노력으로 앞으로 중부지방의 동문들의 소식과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재무보고와 편집위원들의 신년인사가 있었으며 박은경 동문이 기념 촬영을 한 후 회의를 끝냈다. 이어서 대의원회 이사회가 열린다. 다음 4월호 편집회는 4월 13일 토요일이 될 것이다.

글: 편집인 사진: 박은경

수필가 김영애 씨의 수필집
『몸 연꽃 피우기』 출간

김성환(71) 동문의 부인 수필가 김영애 씨의 수필집『몸 연꽃 피우기』(선우 미디어) 출간됐다. 이는 김영애 작가의 네 번째 수필집으로 '포인세티아', '몸 연꽃 피우기', '낙엽을 읽다', '커피에 반하다' 등 상처 난 영혼을 달달한 행복으로 메워주는 수필 40여편이 수록됐다.

김 작가는 머리말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치열하게 자신의 알맹이를 지켜내고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자기를 숙성시킨 홍시의 삶, 나의 글은 홍시만큼 숙성되었을까. 완벽으로의 나의 수필 세계를 위하여, 또 한 번 보이지 않는 창작의 세계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작가는2008년 '수필시대', '수필세계'로 등단했다.

약력: 이화여대 남가주 동창회보 편집장 역임, 미국 LA 피오피코 코리아 타운 도서관 후원 회장 역임, 서울대 의대 북미주 동창회 학술대회 인문학 강의 Chair, 미주 중앙일보 〈이 아침에〉 칼럼 집필.

저서: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 〈사각지대의 앵무새〉 〈렌트 인생〉

수상: 한국 수필 해외 수필 문학상, 경희 해외 동포 문학상, 미주 펜 문학상, 국제 펜 한국 본부 해외 작가상 등 다수.

몸 연꽃 피우기

요가를 시작했다. 잠자던 근육들이 깨어나 반란을 일으키는지 온몸이 삐꺽거리며 저려온다. 야생 동물의 몸짓으로 이어졌던 요가, 뜨거운 양철 지붕 위를 뒤척이는 고양이가 되었나 하면, 가파른 바위 위에서 발톱을 세운 염소도 되었다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힘겨운 날갯짓을 하며 게으른 근육들을 흔들어 깨웠다.

수시로 변하는 동작들은 꼿꼿한 직선의 근육들을 접어 곡선으로 만드는가 하면, 곡선 위에 또 다른 곡선을 얹으며 3D의 삼차원 세계를 창조해 나갔다. 근육을 종잇장처럼 펼치고 접으며 만드는 요가에는 긴장과 이완, 거칠음과 섬세함, 파격과 일상, 동(動)과 정(靜)이 함께 꿈틀대는 것 같다.

'요가'를 생각하면 문득 카레라이스가 떠오른다. 둘 다 고향이 인도라는 것 외에 몇 개의 공통점이 있다. 카레라이스가 각종 야채와 짙은 향료의 합성체인 카레를 섞어 혀의 미각을 콕 쏘아준다면, 요가도 온몸에 퍼진 근육들을 자극하면서 뼈와 혈을 당기고 누르며 예민한 신경들을 콕콕 찔러준다. 또 요가 근육에 힘을 집중하다 보면 뜨거운 전류가 혈관을 타고 돌아 덥고 땀이 나듯이, 카레라이스 역시 맛에 탐닉하다 보면 온몸이 덥혀지며 여기저기에서 땀이 솟는다. 재미난 것은 둘 다 영혼을 정화시키는 시원한 청량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다.

열대의 끓어오르는 기운을 품어 자극적이고 진한 카레와 요가. 카레의 향신료가 인생의 맛과 향을 돋워 몸과 영혼을 알차게 만든다면, 요가도 신체와 영혼을 실하게 하고 열반의 경지로 혼을 승화시켜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월 속에 무너지는 몸을 다시 세워보려 시작한 요가는, 한 여름 떨어진 미각을 깨워주는 카레라이스 같다.

마룻바닥에서 맨발로 진행된 요가 수업이었다. 가열되는 근육운동들로 나의 혼은 점점 어지러워지며 창백해졌다. 하늘로 손을 뻗친 후 갈비뼈를 한쪽으로 틀어 숨을 고정시키려는 순간, 힘줄이 만든 아찔한 통증과 현기증에 몸을 떨었다. 얼마 후 한쪽 다리로 똑바로 서서, 각을 만든 다른 쪽 다리를 붙이며 움츠렸던 다리 근육을 한껏 펴자 별안간 혈관 안에서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더니 심한 경련과 함께 다리가 뒤틀리는 것만 같았다. 얼마 후 숨을 고르고, 엎드려서 무릎 한쪽을 세우며 허리를 틀자 몸은 진땀으로 질척대기 시작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몸속의 근육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같은 듯 싶다. 근육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것 같지만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 이어진 채 서로를 비추고 비춰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삶이 질긴 것은 소우주의 인간 고리들이 대우주인 세상까지 칡넝쿨처럼 이어졌기 때문이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끊을 수 없이 지속된 삶의 근육들을 보며, 더불어 사는 생을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지구촌 여기저기서는 요가의 자세같이 기기묘묘하고 예측 못할 사건들이 황당하게 벌어진다. 그것은 세상이 요가를 하듯 온갖 기이한 형태로 힘줄을 당기고 늘리며 사람들을 진땀 나게 했기에, 사람들도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희한하고 황당한 방편을 쓰기 때문이 아닐까.

죽을 힘을 다했지만 엉성하기 짝이 없는 내 요가 자세는, 허접한 성냥개비를 쌓아 만든 조마조마한 조형물 같았다. 흔들리는 피사의 사탑 모양 빈 공간에서 흐느적대다 약한 바람에도 쓰러질 듯 불안하고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신없이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았다. 두서없이 울퉁불퉁한 하루들과 사리 분별을 잘 못해 균형을 잃어버린 불안정한 내 삶의 모습이었다.

어찌 보면 인생과 요가는 닮았다. 요가의 자세마다 개개인이 수용하는 근육의 강도가 다르듯이, 삶에서도 영혼마다 받아들이는 주변 자극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충격적이고 죽을 맛인 요가의 처음처럼, 삶 역시 시작하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을 듯 싶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삶과 요가. 힘든 자세를 견뎌내야 하는 요가처럼, 인생도 자신의 혼을 당기고 조이며 삶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드디어 피어난 작은 연꽃, 몸에는 긴 날숨과 함께 무아지경의 황홀경이 열렸다. 순간의 연꽃을 피우기 위해, 근육들은 얼마나 힘든 고통을 참고 견뎌야 했을까. 절묘한 자세를 만들려 번뇌만큼 많은 힘줄들을 밀고 당기며 긴긴 날을 땀 흘려 피워낸 꽃이다. 삶의 쓴맛과 시달림도 인내하고 노력하면, 어느 날 그것은 향긋하고도 고운 연꽃으로 피어나 혼을 순화하고 생을 한층 성숙시킬 것 같다.

힘줄의 격한 시달림과 절대 적멸의 순간을 넘나드는 요가, 찰나의 니르바나를 위해 거친 근육의 담금질도 참아낸 그것은 온갖 번뇌를 해탈로 승화시켰다. 영혼의 번민이 안개처럼 걷히면, 텅 빈 무소유 속에서 혼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리라. 요가에는 소우주의 격렬한 노역을 통해, 대우주를 향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요가는 온갖 번민에 가려져 자신의 본모습이 실종된 현대인들이 경험해 볼 만한 몸과 마음의 훈련 같다. 보이는 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혼의 세계를 아우르는 동양 철학의 요가, 어쩌면 육신의 거친 고통을 통하여 찾아가는 자신만의 니르바나일지도 모른다. 거친 질통 속에서 피어난 '니르바나 연꽃'은 더욱 가치 있고 향기로울 듯싶다. 게으른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안타까운 떠남 -내 곁의 두 시인

아헤 김태형 (63, 조지아)

요즘은 백혈병, 뇌종양 등 소아암의 치료 결과가 좋아졌지만 1980년-1990년대엔 재발이 흔했고 사망률도 높아 소아암의 진단이 내려지면 부모님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당시 내가 일하던 에모리(Emory) 대학교에선 신학대학 학생들이 졸업 전에 소아암 병동에서 삼개월 정도 인턴을 했다. 학생들은 환아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놀아 주기도 하는 동안 아이들과 친근한 사이가 된다.

아이들은 가끔 곤혹스러운 질문을 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암에 걸리게 해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이 질문은 나도 종종 받아본지라 신학생들의 답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인다. 젊은 신학생들의 답변은 노년에 접어든 신학대학교수들의 답변과 매우 달라 나를 놀라게 한다. 우선 노교수(老教授)들의 답변은 대개 이렇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네가 암에 걸렸단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잘 견디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는 보지 못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 있느냐"라며 대들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는 잘 못한 것이 없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울며불며 따지기도 한다. 이러고 나면 병동의 분위기는 사뭇 싸늘해진다. 지도교수가 병실을 떠나면 신학대학 학생이 다가와 울던 아이를 달래며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 거야, 너 같이 착한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병을 앓게 내버려 두시겠니? 하나님이 잘못을 뉘우치시고 이렇게 좋은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을 여기 보내셨잖니. 그러니 네가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퇴원해서 학교에 돌아가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표정이 밝아지면서 희망을 되찾고 힘든 항암치료도 아주 잘 견딘다.

나는 이처럼 암 병동에서 아이들이 던져오는 종교적인/철학적인 질문의 정답을 모른다. 오세영 시인이 "산에서 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나 자신 산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나는 될수록 아이들과 한마음으로 내가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정성을 다할 뿐이다.

소아암 병동에서 생활하다 보면 환아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은데 때론 그들이 자기 부모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토해낸다. 하루는 백혈병 치료로 지쳐있던 중학생 혜은이가 말을 건네왔다. "선생님, 저는 죽음은 무섭지 않은데 죽음의 과정이 두려워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이제 열 살이 조금 넘는 소녀가 할 말인가? 벌써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분별하여 말하다니! 나는 오래도록 소아암 환자들과 생활해 신생아부터 청소년 연령층에 이르는 다양한 어린 나이의 죽음을 무수히 체험했다. 이들의 완치가 어려우면 고통이라도 없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으로 가슴 아파했다. 얼마 전 103세의 김형석 교수님이 "나는 어젯밤 잠자리에 들듯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암 병동의 아이들도 회복이 어려울 땐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듯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소아암 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죽음을 가까이서 자주 목격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죽음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죽음의 의미를〈다음면에 계속〉

왜 우리는 늙어가는가 또 그렇게 늙어가야만 하는가?

문성길 (70, 남가주)

얼마 전 선배 되시는 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우리 부부 또한 10여 년 전 똑같은 수술을 받아 아는 바나 세상이 온통 밝아지고 특히 책을 더 가까이할 수 있어 좋았다. 이 선배 말씀도 역시 모든 게 잘 보여 좋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이 더 선명히 잘 보인다고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씁쓸하다. 별의별 못 보아도 될 것들을 보아야 한다면 기쁨보다 더 고통이 될 수도 있겠으니 말이다. 왜 그리 부정적인 말씀이냐 하시겠지만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이 있어도 하룻밤 쟁여두고 볼 일, 마치 시집가는 딸자식에게 하는 친정 부모님들의 신신당부 옛 말씀들 같지만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세상이 삐뚤어지게 보이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충고를 해야만 하는지 참으로 난감하다.

우리들은 평소에 늘 해오던 일들, 보행, 자기 위생(목욕, 생리 배설작용 등), 보고, 듣고, 말하기 등 당연시했던 일들을 서서히, 아니면 갑자기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되살리게 된다. 숨쉬기도 빼놓을 수 없으나 이것은 생과 사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겠다. 그렇기에 어느 환자 한 분으로부터 "의사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특별한 분들"이라고 한다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다.

세월 따라 기계들이 서서히 마모현상을 일으키듯 우리들의 몸도 세월 따라 서서히 노쇠되어감은 자연현상이 아니겠는가, 운동, 섭생 등 각양 각생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음악을 좋아하던 분이 보청기가 필요하게 되면 그 좋아하던 음악이 소음으로 들린다든지 하는 애처로운 경우들을 종종 본다. 허리, 다리가 아파, 무릎이 말을 안 들어, 어깨 회전이 잘 안돼, 운동은커녕 하다못해 산책도 힘들어지면 영락없이 뒷방 영감님, 마님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또한 자연현상임을 어찌하랴!

얼마 전 심신 허약 후 회복기 동안 애주가였던 필자가 금주를 해왔으나 최근에 실시되었었던 PGA Fedex Cup 미국 남자 골프 대회 우승상금이 물경 1천 2백만 불(실제론 Bonus 상금 6백만 불과 합쳐 1천 8백만 불)을 타간 네덜란드의 빅토르 호브랜드의 경기 장면을 보면서 덩달아 소맥(소주와 맥주 혼합주)을 오징어와 땅콩을 안주 삼아 먹으며 집사람에게 한말, 이걸 마시지 않고(금주하면서) 125세(성장기의 5배까지가 정상 수명이란다) 수명을 살아볼 까 아니면 그대로 애주가로 100세(야무진 생각이겠지만) 살아볼까 했더니 그녀의 반응 125년 살면 뭣하노!, 주위의 모든 이들(처 자식 등 가족 포함)이 이 세상에 없을 터인데, 무슨 맛으로 혼자서 그리 오래 살려는고!, 하하 그녀의 말 지당하더이다. 세월이 가면서 적당히 늙어가고 부속품들 점차로 쇠락해가며 세상에 역행하지 않고 물처럼 순리대로 삶을 마감함이 지당하리다!

너무 지겹도록 오래 살면 폐해가 여러모로 막심할 것이니 첫째 노인네들 부양 국가보조금의 큰 손실은 당연지사, 젊은이들 더 많은 일, 더 오래 피땀 흘리면서 일해야 할 것이니 종국에는 눈치 주고받고 할 험악한 지경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허니 나이 들면 자연히 늙어지고 병약해짐은 당연지사이니 너무 인생을 서글퍼 하거나 저항적이어서는 아니 될까 하노라!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니 그렇소!

헛소문

이회백 (61, 시애틀)

1992년 아니면 1993년으로 기억한다.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 당직날도 아닌데 누가 한밤중에 전화를 거나 하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Hello?" "Dr. Lee please."

"This is he." "Uh? No, no, I mean Dr. Hoi Paik Lee…"

그제서야 전화 거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다. "너 상배구나! (그는 뉴욕에 있는 내 동창이다) 너, 웬일이야?"

"어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는 "네가 살아있으니 됐다. 아니 사람들이 이런…" 하고는 도망치듯 수화기를 놓고 통화를 끊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동기 장태환의 부인이었고 "동순이 엄마 좀 바꿔 주세요" 하기에 수화기를 처에게 넘겼더니 한참 동안을 깔깔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뭐가 그리 깨가 쏟아지는 소리지?"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보내는 나를 무시하고 또 한참 깔깔대고 웃은 다음에야 하는 소리가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장태환 부인이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병원에서 레지던트 마친 선배 의사로부터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지만 우리 서울고등학교 동창회보에 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까지 하니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뉴욕에 있을 때 내 처와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장태환 부인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미망인에게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어 다른 동창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이야기를 전해 받은 이 동창이 내게 아니 미망인에게 전화를 한 후 내가 아직 살아있더라고 장태환 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나서 기분 상한 나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이 어떤 경로로 퍼졌을까 하는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궁금증을 풀 실마리가 잡혔다. 시카고에 있는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인 신광승이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고등학교 동창회 회보 사본을 내게 보내준 것이다. 거기에 이미 타계한 동창들 명단에 나도 한몫 끼어 있는 것이었다. 그해 나는 동창회 회보를 받은 적이 없어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본을 보자 전에 우리 동기동창 재미 고등학교 동창회를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시카고 동창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받은 처가 내가 잘 있느냐는 인사말 외에는 아무 전하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기에 좀 이상했었다는 처의 말이 생각났다.

어떤 연유로 내가 동창회 명부에 죽었다고 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생겼지만 내 친구가 말했듯이 내가 살아있으면 됐지 하고 속으로 웃고 이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미의사회 회보에 난 기사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난 게 아닌가 하는 공상이 생겼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해본 이 공상이다. 이 공상은 전혀 사실과는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공상은 아니라고 믿기에 한번 펼쳐볼까 한다.

재미 한인의사회 회보에서 본 기사는 이런 내용이다. 뉴저지에 사는 이 아무개라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남보다 훨씬 늦게 미국에 이민 와 갖은 고초 끝에 의사 수련을 마친 후 면허를 획득, 이제는 간신히 살게 되었다고 한숨 놓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장 기능이 상실되어 사생을 헤매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딱한 소식을 전해 들은 고국에 있는 동창들이 그를 살리고자 기금을 모으고 이식할 신장을 사면팔방으로 물색하는 한편 신장이 구해지면 고국에 데려와 신장 이식수술을 하게끔 마련해 놨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도 탄원을 했다. 그의 신장 상실 근원이 그가 전방 근무 시에 걸린 전염성 출혈열(Epidemic Hemorrhagic Fever)에 있으니 정부가 마땅히 치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청원한 것이다.

그에게 맞는 신장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그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뉴욕을 출발한 비행기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내려 연료 공급을 받고는 서울을 향해 떴다. 얼마나 기뻤으랴. 아! 몇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살아난다. 그러나 그 기쁨은 너무도 짧았다. 기내에서 그는 숨을 거둔 것이다. 서울을 향하던 비행기는 기수를 돌려 앵커리지에 다시 내렸고 그는 서울 수술실 대신 뉴저지 장례지로 향했다는 눈물겨운 기사였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추측(또는 억측)을 해본 것이다. 이 의사의 성이 이씨였다는 것. 이름은 잊었지만 내 이름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죽은 곳이 알래스카 상공이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고 알래스카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것. 이런 일들이 겹쳐 비극의 주인공이 나라고 누가 속단(Jump into a conclusion)을 내린 게 아닌가 추측해 본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내가 이곳(Fairbanks)에 와서 몇 해 후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다. 하루는 딸이 엄마에게 전화로 "엄마 아버지 죽었어, 흑,흑,흑…"

"뭐? 아버지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킴 오브라이언이 Fairbanks Memorial 병원 의사 닥터 리가 죽었다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데. 흑,흑,흑…"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다. 집에서 근무 중 전화 오는 일이란 극히 드문 일이라 "웬일이야?"

"어… 어… 당신이요?"

"아니 당신이라니 이젠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게 됐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위에 적은 내가 죽은 이야기를 깔깔대면서 해줘서 "어. 당신이요" 한 이유를 알았다.

나 아닌 다른 닥터 리가 있었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들 모르고 있었다. 같은 병원 건물에 두 기관이 있었는데 나 아닌 "닥터 리"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알래스카 원주민 진료소 소속 직원이라 아무 접촉이 없는 데다가 부임한 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몰랐다.

이곳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데날리; 또는 맥킨리'라고 불리는 국립공원인데 이 닥터 리도 오자마자 이곳을 향해 차를 몰다가 졸아 벼랑에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해서 이것을 "닥터 리가 죽었다"라고 방송하는 바람에 벌어진 소동이었다.

미워서 저놈 빨리 죽었으면 하는 놈일수록 질기게 오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죽었다고 소문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내 동창 신광승이 너는 죽었다고 소문이 났으니 백 살은 살 거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나는 이런 소리를 믿지 않고 아무 근거 없는 소리라는 것 모르지 않지만 실없는 소리라고 일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나한테 손해 날것 없으니. 고래부터 人生七十古來稀 라고 했는데 벌써 80을 훨씬 거뜬히 넘기고 의과대학 졸업 60주년도 지났으니 이게 다 죽었다고 소문난 덕이 아닐 손가.

So Trued to a Roar

Christian Wiman

So trued to a roar,
so accustomed to a grimace
of against, I hardly noticed
it was over.

Like an invalid I crept
out into the open
(since where was there an open?)
and like a revenant lipped

the names of things
turned things again:
white pine, quaking aspen,
shagbark that by all rights

should have been shorn.
Was it for this, I asked
(since when was there
someone to ask?)
that I was born?

No answer, unless of leaves
acquiring light, and small lives
going about their business
of being less,

and on the clear pond
(and in the clear beyond)
the mien of a man
unraptured back to man.

진리를 찾는 분의 사자 후

김해암(58, 대뉴욕)* 번역

침을 토해내는구려!
그렇게도 안면이 일그러져 저항하는 일이
거의 다 지나갔군요.

불구자같이 나는 기어가듯
광장으로 나간다
(어제 그 많던 군중이 있었던 여기)
그리고 나의 입술은 터져 나올듯한데

세상 만물이 만사를 돌게 하듯이
백솔이 살랑이는 미루나무, 백양나무들은
모두들 자기 몫을 주장하는데

내가 태어난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고 누구에게 물을까?
이 한마디를 외치고
갈라놓고 호소하기 위하였던가?

아무 대답은 없어요,
나무 잎들이 햇살을 머금고
자기들의 작은 일에 열중할 뿐,
그리고 건너편의 넓은 호수

먼 곳이 더 투명해 보이는 수면 위에
남자의 모습이
다시 황홀하게 살아나고 있네요.

*겨울은 정녕 오려나. 세계는 참 지도자를 기다린다.

〈전면에서 계속〉 아는 것은 아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적어도 한 일곱 살은 돼야 죽음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아암 병동에서 가끔 Code Blue(응급 심폐소생술 팀 호출 경보)가 울리면 잠자던 아이들도 다 깨고 조용하던 병동이 의사들, 간호사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에 소란해진다. 얼마 지나면 한쪽에선 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때론 여러 사람의 슬픈 곡성이 울려오기도 한다. 이래서 아이들은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죽음의 과정을 겪으며 한밤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보다. 코드 블루를 아이들로부터 차단할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환자의 응급 상황은 성인 병동, 어린이 병동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인실 일인실 격리실을 가리지 않는다. 코드 블루의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들려준 말이 생각난다. "선생님, 참 우스워요. 지금 막 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우리 병실에선 엄마들이 모여 술이나 한잔하자고 막 떠들어 대며 웃기도 해요. 참 이해 못할 광경이에요."

내 환자 중에 이제는 천사가 된 두 시인이 있다. 허혜린(1993-2007)은 백혈병 환자로 국립암센터에서 1~2년을 같이 보냈다. 다재다능했던 혜린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렸지만, 특히 문학을 사랑했다. 틈틈이 시를 썼고 열세 살에 시집 한 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내가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러 번 안부를 물어왔다. 사망하기 두 달 전 보내온 E-mail 편지는 한 편의 시(詩) 자체였다.

아름다운 사랑이란 부르는 것이 아니래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레는 가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거래요…/ 조그만 실망에도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요/ 아주 미미한 행복이라도 기대고 바라면 사랑은 이루어진데요/ 선생님 저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귀히 간직하고 있는 詩, [당신]은 혜린이 치료받으며 암센터에서 쓴 것이다.

[당신] 허 혜린

차가운/ 눈송이에/ 닿은 마음처럼// 슬퍼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우리에게/ 건넨 작은 희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그 작은 희망 속에서…// 당신을 위해/ 내가/ 행복을 느꼈다는 것을//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커서였을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느껴지고 슬픔을 지우고 평온을 찾으려는 마음도 읽힌다. 죽음은 우리를 진실한 사랑과 만나고 싶게 해주나 보다.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던 혜린! 지금이라도 만나 위로해 주고 싶다.

김현영은 (1988-2010) 뇌종양으로 아산병원에서 만났다. 성정이 한없이 고운 그는 병동의 어린 환자들의 누이나 엄마 역할도 했다. 수녀가 되어 병상의 아이들을 오래도록 돕겠다던 그의 아름다운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슬픈 웃음] 김 현영

두렵습니다/ 희망 없는 그 소리/ 흐르는 물소리까지// 무섭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서/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는 내가/ 수술실로 향하는 내가// 아파옵니다/ 밖에서 나 몰래/ 울고 계신 엄마 마음/ 집에 혼자 버려진 오빠 마음//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병동에서 다른 아이들을 내 몸처럼 돌봐주던 현영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짧은 생(生)이지만 참 값지게 살았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했다. 긴 생을 살아온 나는 여기 짧은 생을 살다간 두 어린 시인을 떠올리며 깊은 회상에 잠긴다.

오늘날의 양자 역학 이론은 우리 몸과 우주는 한결같이 원자로 구성돼 있고 우리가 죽으면 자동 분해돼 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속 원자가 흩어져 지구의 다른 것의 일부가 된다고 한다. 또한, 금세기 최고의 지성 Stephen Hawking (1942-2018)은 "사후세계도 없고 물론 천국도 없다. 인간이 죽으면 단지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혜린, 현영을 생각하면 물리학자들의 과학 이론도, Stephen Hawking의 우주 생성원리도 믿고 싶지 않다.

아버님의 일기 (2)

초당草堂 강용흘姜龍訖을 추도追悼함

서 윤 석 (68, 버지니아) 정리

(1) 편에 이어 (2) 편의 글을 올린다. 김상필 님은 그 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의 결심대로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허헌 변호사와 영생 학교를 건립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일본으로 유학했다. 동양대학교의 교육, 윤리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모교인 함흥 영생(남녀)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동양대학 재학 중 어머니가 위독하시어 잠시 귀국하였던 1923년 9월 1일 무렵, 참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관동 지진의 대학살을 면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신 셈이다.

초당 강용흘을 추도함-원작 김상필

초당 강용흘

1972년 12월 16일 국내 각 일간지는 11월 11일 미국 가든 메디칼센터에서 별세한 초당 강용흘의 장례식이 미국 후로리다주의 멜본시에서 거행되었다고 보도했다. 1970년 6월 2차 모국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돌아와 모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다짐하던 그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한 것이다. 외국의 저명한 문호들로부터 〈타고난 시인〉, 〈동양의 예지〉라는 격찬 속에서 명성을 떨치면서도 자신의 조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못한 채 영영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소식을 들으니 무척 서글프다.

강 박사가 우리에게 소원해진 것은 당연하다. 그가 우리말로 쓴 글은 중학교 졸업 직후에 발표한 〈칠보산 유람기〉밖에 없다. 그는 일제 학정 밑에서 무명 청년으로 조국을 떠난 후 줄곧 외국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극소수의 문인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문단과 연락이 전혀 없었다. 평소에 친분이 두텁던 벗들에게까지도 거의 소식을 끊다시피 했다. 필자도 함흥 영생중학교 교장 재임 중에 한 통의 서신을 받았을 뿐이니 말이다.

언어와 문자가 인간의 사상을 전달하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인데 외국어로만 줄곧 발표한 그의 작품을 즉 그 외국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사들 한테조차 알리지 않았으니 한국의 일반 독자들이야 어찌 그의 행적을 알 수 있었으랴.

초당은 1898년 5월 10일 함남 홍원군 산양촌 둔지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철이 들기 전에 이미 어머니를 사별한 그는 성균관 제학을 지낸 숙부로부터 엄격한 감독하에 학문을 배웠다. 그래서 문리(文理)가 트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출중한 기억력으로 중국 사서(四書)는 물론 고문진보(古文眞寶)까지 줄줄 암기하여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가 자랄 때는 한일 합병 전후이어서 국내외 애국지사들은 속속 해외로 망명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민중의 개화운동이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영제 이동휘 선생은 친일 이용구가 이끄는 일진회와 겨루기 위하여 이갑, 안창호 가 주동하는 서우학회와 자기와 이준이 이끌던 한북흥학회를 서북학회(西北學會)라는 이름으로 통합시키면서 항일 민중 개화운동에 나서고 있었다. 이동휘 선생은 1909년 3월 강화도 전등사에서 의병조직을 모의하던 중에 체포되어 인천 대무의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뒤 풀려나오자 고향인 함경도로 왔다. 개화의 불씨를 지르기 위함이었다. 그가 찾아온 당시의 관북(關北)에서는 그 운동이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이동휘 선생은 강단에 나서면 먼저 눈물을 줄줄 흘렸다. 관중들도 그와 같이 울면서 그의 웅변과 지성에 감복했다. 현존하는 관북지방의 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으로 그의 영향력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향학열을 고취시켰고 여기저기에서 서당을 폐쇄하고 학교를 세웠다. 청년들의 머리채가 날아가고 상투가 잘렸다. 부모의 승낙이 없이 도피유학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란 강 박사의 사상 속에 애국애와 민족애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은 당연하다. 그의 고향 홍원군도 이 풍조를 탔다. 최팔봉, 한위건, 이봉수, 한좌건, 서항석, 김계숙, 서정관 등 쟁쟁한 재사들이 속속 서울, 일본 등지로 유학길에 나섰다. 그 가운데 강용흘도 포함된다.

15세 되던 봄 신랑 강용흘은 자기 보다 엄마의 품을 더 밝히는 어린 색시가 친가로 간 틈을 타서 무작정 유학의 길에 나섰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다는 북간도 용정 땅으로 걸어서 갔다.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이었다. 간신히 동흥중학교에 입학되었으나 그는 숙식을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서울로 간 그는 서북학회가 중심이 된 오성중학교에 입학되었다. 고학생 집단인 '갈돕회'에 가입하여 방과 후면 계란빵 행상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으나 오래 계속할 희망이 없었다. 1학년을 겨우 마치고 결국 고향이 가까운 함흥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래서 영생중학교 2학년에 보결생으로 입학하였다. 필자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이 바로 이때였다. 키가 작달막하고 입이 크고 눈썹이 짙은 마음 좋은 호인(好人), 이것이 그의 첫인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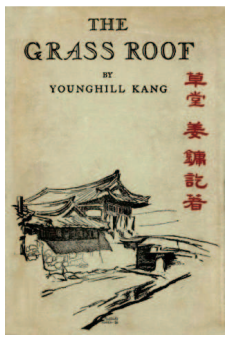
그는 당시의 영생중학교 교장인 선교사〈영〉목사와 함북 지방의 담당 선교사 부록도(Proctor) 목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했다. 매월 4원의 보조를 받았다. 그와 함께 영생중학교 8회(1918) 졸업생으로 월남하여 생존한 분은 종교계 김사익, 서예계 김영수, 원예계에 박성엽, 실업계에 이용혁, 교육계에 필자가 있다. 당시 토박이로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동기생 김영수의 생일 5월 10일이 강용흘의 생일도 되었던 관계로 김영수는 초당을 꼭 초청했다. 다른 음식보다 떡을 즐겨 하는 그를 우리는 떡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애국심이 강했던 초당은 장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성엽을 국무총리에 임명하겠다."라고 호언했다. 대통령이 되려면 웅변을 잘해야 한다면서 아침저녁으로 반용사 소나무 숲으로 올라가서 함흥 시가를 향하여 열변을 토하고 이동휘 장군식의 웅변을 흉내 냈다. 그의 호언기행(豪言奇行)은 계속 됐다. 일본인들을 만나면 서투른 일본 말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배일운동은 한국 독립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가서 윌슨 대통령을 만나야겠다고도 했다. 친구들은 그를 야성적인 시골 사람, 허파에 바람이 든 자, 그러나 장차 엉뚱한 일을 저지를 자라고 말했다.

함흥 영생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부록도 목사를 따라서 지방 교회 순방도 했다. 함경북도의 두메산골 고진동 지방의 기독교 보조사 노릇도 했다. 선교하는 목사들과 동행하면서 쓴 명천 칠보산 유람기(明川七寶山遊覽記)를 기독신보에 실은 것이 이 무렵이었다. 이것이 초당(草堂)의 처음 활자화된 작품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초당은 종로의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영어 강습을 받고 있었다. 군중의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며 길를 휘쓸었을 때 종로 5가 전매청 연초공장 부근에 이르러서 "여기 직공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대문을 부시고 들어갔다. 그 일로 일경에게 쫓기던 그는 강원도 지방으로 도망 다녔다. 그 무렵 함흥에서는 부인을 사별한 영 목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귀국한다고 하니까 그 두 아이를 보살핀다는 조건으로 그와 동행하게 되었다. 영목사가 보증하고 10원의 보증금까지 내주고 여권을 받아서 1921년 그의 나이 23세 때에 캐나다로 갔다. 그의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캐나다에서 여장을 푼 그는 그의 독특한 기억력을 구사하고 어학 습득에 전력을 기울여 파인힐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캐나다보다는 미국에 뜻을 품고 있었다. 결국 탈라우지대학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대학에서 의예과를 마쳤다. 그러나 혈맥 속에 꿈틀거리는 시흥(詩興)을 참을 수 없는 타고난 시인, 초당은 과학자나 의사로서 일생을 마칠 자신이 없었던지 명문 하바드대학의 영문과에 다시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서당에서 회초리를 맞아가며 당나라 시대의 시와 사서삼경을 암송하던 그 버릇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하이네, 바이론은 물론 셰익스피어의 중요한 작품들을 대부분 소리 내서 암송했다. 옆방의 급우들한테서 조용히 낭송할 수는 없느냐고 충고를 받기도 했다. 이런 때는 책을 끼고 교외나 공원으로 도피했다. 1929년 동양의 시를 번역한 후에 브리태니카 회사에 입사하면서 초당의 문학적 활동은 본격적인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특히 1931년 간행된 초당 〈The Grass Roof〉는 젊은 시절의 온갖 정열을 퍼부은 그의 대표작 장편소설로서 그를 세계적인 문단에 등장시킨 대작이다. 초당은 그 후로 로마대학(1933), 뮌헨대학(1934) 파리대학(1935) 등 유럽의 명문 대학을 두루 찾아 수학하는 한편 1933년에 〈다정한 숲〉, 1937년에 〈동양 양반 서양에 가다〉 등 10여 편의 소설과 공민왕을 주인공으로 한 〈왕궁에서의 살인〉과 〈동양시 번역집〉 등 작품을 썼다.



뉴욕대학에서 동양문학과 비교문학 강좌를 맡았을 때에는 唐宋 시대 시는 물론 한국시조, 신체시까지 영역을 하여서 원고도 없이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비교하는 유명한 비평 강좌를 해서 학생들을 매혹시켰다. 때로는 타고난 시인다운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그의 문학 정신을 가르쳤다. 그는 구겐하임상, 북어브더센 추리상을 받았고 브리태니카 사전 편찬위원으로 일했으며 20세기 작가 사전에 수록되었다. 펄벅 여사는 그를 〈동방에서 가장 빛나는 예지〉라고 극찬했다. 토마스 울프는 〈언제나 가장 자유롭고 생기 있는 타고난 시인〉이라고 흠모했다.

시의 번역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이민족의 고도로 승화된 표현과 감정의 밀도를 다시 풀어서 생리가 전혀 다른 언어나 문리로 재편하는 작업이 쉬울 수가 없다. 원작의 향기, 속삭임, 리듬을 번역으로 재현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면 다 공인하는 사실이 아닌가. 더구나 중국어 작품의 詩性, 특히 당나라 시대의 근체시, 규격화된 운韻 외에 사성 배치도 엄격한 법인데 초당은 그런 어려운 작업에 용감하게 도전하여 거뜬히 성공한 것이었다. 중국의 문호 호적 박사가 초당과 각별한 교분이 있게 된 것은 초당의 한시의 영역에 감탄한 때문이었다.

초당이 고국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해방 후 1947년이었다. 하지 장군의 일을 돕기 위하여서인데 그때 공산당을 피해 월남한 사람들의 모임에 와서 그의 최초의 강연을 했다. 소년 시절 장차 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했던 그인지라 청중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그의 강연이 끝날 무렵에는 참가한 사람들은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순수문학에 국한된 강연이기 때문이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때인데 누가 그의 순수 문학 강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초당은 결국 1년 정도 머무르다가 동양 화집 몇 개를 얻어가지고 소식도 없이 훌쩍 미국으로 가버렸다. 훗날 들리는 말에는 김규식 박사와 친했던 그가 아마도 이승만 박사가 준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미국으로 떠났다는 풍문도 들렸다. 그에게 공산주의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진상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자유롭고 생기 있는 타고난 시인인 그의 언행이 오해를 받게 했을 것이다. 초당처럼 애국적인 자유 민주주의자가 공산주의자라니 그 말은 지어낸 망언일 것이다.

그 후 그의 두 번째 조국방문은 1970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펜대회 때였다. 부인 프란세스(Frances) 여사와 딸 루시, 아들 크리스 군이 동반했다. 24년 만에 조국을 방문한 그는 1970년 6월 26일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고 7월 6일에는 YMCA 시민 강단에서 〈한국 문학의 시장성〉이라는 제목으로 순수문학 강연을 했다.

그는 어느 작품에서나 자유대한민국을 빛냈으며 조국을 세상에 넓게 알리려고 애쓴 흔적이 많다. 만년(晩年)에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영역했다. 문학적 반려이자 작가인 프란세스 여사의 내조의 공이 그의 어느 작품에나 들어 있지만 〈님의 침묵〉번역에서는 도움이 더 컸다고 말했다. 딸 루시 양은 그때 방한을 계기로 코리아 타임스에 자주 린강(Lynn Kang)이라는 이름으로 명문을 기고해 왔다. 그녀도 부모를 닮아서 문학을 전공한 재원이다.

옛 친구 초당 강용흘의 명복을 빈다.

1974년 4월 김상필

김상필(1900-1996)님의 경력

함흥영생 남,녀 중학교 교장/ 해방 후 미군정 과도정부 문교부 초대 장학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활란) 재단이사/ 문교부문화국장, 국립도서관장(1960)/ 학술원, 예술원회원 선정위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사(1956-1996)

하늘 값과 땅값

예부터 남자를 하늘, 여자를 땅이라고 했는데 하늘 값은 한 푼도 안 오르고 땅값은 갈수록 오르니 여자가 큰 소리 내도 할 말 있으리오. !!!

미테 시리즈

멀미약은? 귀미테
피임약은? 요미테
변비약은? 더미테
무좀약은? 맨미테

당신의 친척

드라이브를 즐기던 어느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서로 말도 않고 썰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차창 밖으로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는 게 눈에 띄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며 말했다.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시지?"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가 그 개에게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이덕숭)

미국에 전파되는 우리 시조에 대하여

박종희 (75, 시카고)

세종문화회는 2004년 시카고에서 이민 1세 한인들 중 서울대학교 동창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음악과 문학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미션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세종 음악 경연대회, 2006년부터는 세종 작문경연대회를 매년 개최 해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시조 짓기:

초기의 세종 작문경연대회에서는 수필을 쓰는 것이었는데, 2008년에 대회 기획위원장인 Heizn Insu Fenkl 교수께서 시조 부문을 대회를 추가하는 의견을 내고, 당시 시조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하버드 대학의 David McCann 교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시조 짓기를 배워 영어로 시조를 쓴다는 생각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조는 우리에게는 소수의 고대 시조 시인들만 쓸 수 있는 오래된 시의 형태로 생각했고, 우리의 시조 경험은 고전 학자들이 쓴 위대한 시조를 읽고 음미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조를 우리가 쓴다는 건 들어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조를 가르치고 있던 McCann 교수와 대화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미 미국과 캐나다의 소수의 시인들이 시조의 형태를 받아들여 영어로 시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시조 번역서 Bamboo Grove (Richard Rutt, 1971), 100 Classical Korean Poems(김운송, 1986), Kevin O'Rourke (The Sijo Tradition, 1987) 외에도 여러 권의 영어 시조 책들이 출판되어 있었고 1995년 경에는 Larry Gross (미국인, 영어 문학 교수)와 Elizabeth St Jacques (캐나다인, 시조시인)이 시조를 소개하는 글들과 자신들이 지은 시조들을 인터넷 잡지에 올리고 yahoo.com에 시조 동우회를 만들어, 많을 때는 약 100명이 참가하여 시조에 관한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McCann 교수 외에도 Utah와 California에서 한국 문학이나 역사를 가르치시는 몇 분의 교수님들이 대학 수업 시간에 시조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영어 시조 대회:

영어 시조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는 중에, 미국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시의 여러 형태를 배울 때, 일본의 하이쿠를 배우고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이쿠를 써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쿠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갈 수 있다면, 시조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08년에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의 협찬을 받아 세종 작문경연대회에 시조 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회 초기에는 1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어떤 주제든지 영어로 쓴 시조를 일인당 한편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Cash Prize를 제공하며 시조 경연대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국의 영어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시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조 교육자료들을 만들어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아, 시조 대회는 매우 빠르게 확장하여 참가자 수가 급속이 늘어나 2014년에는 미국 41개 주에서 1,300편 이상의 시조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성인부(19세 이상)를 추가하여 매년 약 1,200-1,400명이 세종 작문경영대회 시조 부문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국적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시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세종 국제 시조 대회(Sejong International Sijo Competition)를 추가로 시작하여 2023년에는 6대 주의 29개국에서 350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조 교육:

시조 대회를 시작하면서, 세종 문화회는 미국의 영어 교사들에게 시조를 가르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조를 배우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어 교사들은 한 분이 50명-200명을 가르치기에 교육의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조를 어떻게 쓰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많은 교육 자료들을 세종 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으며, 2010년부터는 시조 워크숍을 시카고에서 매년 열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시조를 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졌으며, 시조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방식에 관한 토론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댈러스, 애틀랜타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교육자를 대상으로 시조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세종 시조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교사들을 초청하여 시조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 때부터는 시조 워크숍을 Zoom 미팅으로 하여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온라인 시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조 수업 동영상:

워크숍에 참석한 많은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은 어떻게 시조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교사들을 위해 2017년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지원금을 받아, 시조를 여러 해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수업을 비디오 녹화하였습니다. 버지니아, 위스콘신, 테네시, 콜로라도의 고등학교 시조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세종문화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아 시조 수업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시조를 가르치는 수업 동영상도 제작하여 세종문화회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단 한 시간 동안의 시조 수업을 마치고, 즐기면서 음절을 손가락으로 세며 스스로 시조를 짓는 것을 보며 시조가 미국 교과 과정에 잘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하여, 시카고의 시립도서관 (Harold Washington Library), 시재단 (Poetry Foundation), Andrew Bae Gallery에서 시조 강의와 시조 낭독을 하고, 한국 전통음악 연주와 한국 음식, 막걸리, 소주도 곁들인, 참가자들이 한국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시조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최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조 수업의 혜택: 수년 전에 인디애나주에서 시조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Duane Johansen 씨가 다음과 같은 시조 교육 경험담을 보내왔습니다.

"브랜든은 올해 1학기에 창작 문학 수업 시간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브랜든은 문학에는 관심이 없어, 시를 싫어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축구 선수여서 사냥이나 야외 활동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조를 배우고는 너무 재미있다고 숙제로 시조 한 편을 써내라고 했는데 세 편의 시조를 지어 왔습니다. 모두 사냥, 낚시, 운동 등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브랜든의 학기말 최종 프로젝트 표지에는 터키를 사냥하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시조에 곁들였습니다. 브랜든은 본인의 소견 발표에서 '나는 시조라는 시의 유형을 배웠는데, 나는 정말로 좋은 시조를 썼다. [이것이] 나의 글쓰기를 많이 개선시켰다. 이것은 나에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브랜든이 시조 대회에서 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시조를 쓸 수 있다는 자신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고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라고 경험담을 전해 왔습니다.

세종문화회는 많은 교사들로부터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시가 어려워서 쓰지 못하던 학생들이 정형시인 시조를 배우고, 쉽게 쓰게 되면서 "나도 시를 쓸 수 있다. " 하고 자신감을 얻고 글쓰기에 흥미와 자신감을 얻었다는 경험담을 들으며, 시조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사들은 시조야말로 아주 짧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훈련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하며 "이렇게 재미있는 시조를 왜 여태 몰랐을까."라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시조 교육:

지난 15년간 세종문화회는 영어 교사들을 위한 전국 모임에 시조 교육에 관한 주제들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영어 교사 조직 중 가장 큰 조직인 'National Council for Teachers of English(NCTE)'의 전국 모임에서 시조와 시조 교육의 혜택에 관한 주제로 여러 해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위스콘신, 오하이오, 일리노이의 영어교사협회, 독서 협회, 작가 협회들의 연례 모임에서도 시조 교육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영어교사들이 자주 보는 저널과 교육자들의 웹사이트, 시인들의 웹사이트에 시조에 관한 기사들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시조와 음악:

한국의 선조들은 시조를 노래(시조창)로 타악기 반주와 함께 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조를 현대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만들고져 힙합 뮤지션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시카고의 예술가 집단인 Elephant Rebellion(ER)과 협력하여 한국의 고전 시조, 세종 작문경연대회 우승작, ER 구성원들이 직접 쓴 시조까지 다양한 시조들을 주제로 하여 힙합 송을 만들었습니다. ER은 2013년 시조 대회 1등 수상작인 Roberto Santos 의 'Still American'을 사용하여 힙합 송을 만들어 많은 이벤트에서 공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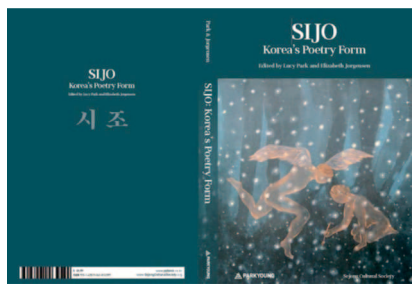
STILL AMERICAN
They say go, return to land that
I don't know. It makes no sense.
Born and raised American,
so Mexico is still foreign.
Culture kept, but this is my home.
Immigrant, no: Hispanic.
~ Roberto Santos, Laredo, Texas

가라네, 내가 모르는 나라로
돌아가라니, 말도 안돼
난 여기서 나고 자란 미국인,
멕시코는 외국인데
미국은 내 고향, 난 이민자 아냐
히스패닉이지!
(Translated by Young-Ae Chon & Lucy Park)

이외에도 시조를 테마로 하는 클래식 뮤직, 재즈 뮤직도 작곡하도록 커미션을 하였고 2017년에는 시재단 (Poetry Foundation)에서, 또 2019년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St. James Cathedral에서 여름마다 열리는 유서 깊은 Rush Hour Concert에서 '시조와 음악'이라는 콘서트를 공연하였습니다.

시조 참고서 제작:

많은 영어교사들의 요청에 응하여 영어로 시조 쓰기에 관한 참고서 'SIJO: Korea's Poetry Form' (Lucy Park and Elizabeth Jorgensen 편집, 박영사)를 2022년에 출판하여 영어교사들과 도서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이 책은 아시아 연구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y)로부터 Frankly Buchanan Prize(최우수 교육도서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말에 NASA에서 보내는 달 착륙선에 실려갈 Time Capsule에 포함된 시집 Polaris Trilogy에 11편의 시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집의 편집인 Joyce Brinkman이 세종문화회의 박종희(의대, 75) 사무총장과 협력하여 시조가 다양한 세계의 시들을 모은 책자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글:

미국에서 영어로 시조 쓰기는 1990년 중반에 소수의 시인들이 시도하다가 시들해졌으나, 2008년에 세종문화회에서 시조 경연대회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전국의 영어교사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시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아서, 영어로 쓰는 시조가 미국 내에서 빠른 속도로 넓게 알려지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조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시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문학과 시를 멀리하던 사람들을 시의 세계로 인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미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재미있고 유익한 토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조는 새로운 이들에게 큰 접근성과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시조를 쓰려고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조는 한국어나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시조 참고서 (SIJO: Korea's Poetry Form)에서 예들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여 시조가 세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웹사이트 링크 주소

Sejong Cultural Society
https://www.sejongculturalsociety.org/index.php
YouTube Channel Sejong Cultural Society
https://www.youtube.com/@sejongculturalsociety
Sijo Reference book, SIJO: Korea's Poetry Form
https://amzn.to/3JsNl3P
Sijo is going to the Moon
https://www.youtube.com/watch?v=yDK0STIKHN0&t=47s

간장게장

김창남 (69, 대뉴욕)

"오늘 간장게장 먹으러 갔었어. 민이(처남 내외)네 데리고. 도둑놈들이야 한 마리에 4만원, 말이 안 돼. 근데 맛은 있더구먼."

처제가 아내한데 이 주 전에 보낸 카카오 메시지다. 부당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가격에 대한 성토다. 도둑놈이란 거친 단어까지 쓰며 성토가 자못 통렬하다.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맛은 있었다는 간장게장. 도대체 어떤 놈인가?

아내는 이번 서울 갔을 때 간장게장 못 먹고 온 게 못내 아쉽다. 더구나 미국 떠날 때부터 이번 여행에서 하고 싶은 것들 목록에 올라있었던 건데, 동생들은 간장게장으로 '소문난' 집이라는 델 갔는데 자신은 이러 저런 일로 빠졌다. "그 집이 소문난 집 이래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난 간장게장이 왜 맛있는지 모른다. 그저 짜기만 하다. 우선 게 란 놈, 그 몰골이라니, 흉측하다. 정 가는 데가 없다. 성미 꽤 까다로운 걸로 한가닥 할 노인네가 연상되는 등껍질이다. 손가락이 이곳저곳 꾹꾹 찔리는 고문(?) 끝에 드디어 나타나야 할 주황색 알, 그 고소하다고 호들갑을 떠는 알은 눈곱 만한 게 어디 잠적해 있는지 안 보이는 때가 많다.

당신은 볼티모어 블루크랩(blue crab) 밖에 먹어 본일이 없어서 그래. 아내가 나의 한계를 지적해 준다. 그렇다. 평남 맹산(孟山)이란 산골 출신인 어머님은 게에 대해 특별히 애틋한 마음은 없으셨던 듯싶다. 자라면서 간장게장을 먹어 본 기억이 나질 않는다. 게라는 걸 먹어 봤다고 할만한 첫 경험은 볼티모어에서 인턴 시절, 내가 방 한 칸을 빌려 살던 집 주인이었던 혼자된 할머니가 데리고 갔던 식당이었다. 크긴 하다 했지만 고급은 아니로구나 단박에 파악되던 식당. 기다란 식탁들이 연이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엔 백지가 깔려 있었다. 걸상은 뒷받침이 없는, 여럿이 함께 앉는 소위 우동집 걸상. 나와 주인집 할머니는 이미 와있던 고객들과 합석을 해야 했다. 우리가 합석해야 할 분들 앞에는 이미 500CC짜리 맥주 머그들이 놓여있었다. 서민적인 풍경, 정겨운 서민들 삶의 단면을 보는 듯했다.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은 제빵사(baker)였다.

살이 많다는 엄지 -적대적, 공격적이며 살벌한 엄지, 나한테 서툴게 굴지 마!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는 엄지-의 살을 빼먹자면 맬렛(mallet)이라는 나무 방망이가 필요하다. 나무 방망이라고 하지만 형태는 꼭 떡메를 닮았다. 찐 찹쌀을 나무판에 놓고 장정이 그 무지막지한 물건을 머리 위까지 치켜들었다 내려치는 그래, 또글또글하던 밥알 한 알 한 알은 형체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 무시무시한 폭력의 가해자, 떡메와 똑같은 형태와 구조다. 즉 소형 떡메다. 푸르딩딩한 블루크랩 대여섯 마리-소금과 후추를 듬뿍 넣어 찐 게-와 소형 떡메 그리고 맥주 한 머그가 내 앞에 차려진다. 나와 블루크랩과의 첫 번째 결투(duel)는 나의 참패로 끝났다. 흉측한, 시각적인 호소력은 별로인, 게를 앞에 두고 난 도대체 공략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다.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위험하지 않다고 (知彼知己 不殆) 했는데 남도 몰랐고 나 자신도 몰랐으니 必敗는 예정된 순서였으리라. 우선 등껍질을 몸체로부터 어떻게 분리시켜야 하는가부터 난감했다.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수밖에. 철옹성 철벽같은 등껍질 보다 엄지들은, 험상궂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해 보인다. 그런데 무력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엄지들을 떡메 같은 맬렛으로 내려친다는 건 어쩐지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끼어든다.

가볍게 몇 번 두드려 봤으나 이리 튀고 저리 튀며 나를 조롱할 뿐 껍질은 요지부동 몇 대 얻어 맞고도 본래의 매무새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세상만사 다 그렇듯이, 역시 정의로운 방법으론 안되는구나! 맬릿을 어깨 위로 잔뜩 올렸다가 무자비하게 내려치니, 과유불급(過猶不及), 박살이 나며 산산이 부서진 껍질 조각들은 살에 박혀 게릴라처럼 매복한다. 멋모르고 덥석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난동을 부릴 놈들! 껍질이 안 까져 못 먹나 게릴라처럼 매복해 있는 껍질 조각 때문에 못 먹나 못 먹기는 마찬가지. 애꿎은 맥주나 벌컥 벌컥 들이키는 수 밖에.

나의 게에 대한 경험, 게와의 투쟁의 역사가 이리 일천 할 진대, 내 어찌 간장게장 맛을 알 리요!

도대체 맛이란 게 뭐야?

맛이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등의 다섯 가지의 기본 맛을 담당하는 미각 외에 후각, 시각, 청각, 근각(筋覺) (마른 오징어 씹을 때),촉각(수제비의 매끄러움) 등이 모두 동원되는 복합적 과정의 결과물이라 한다. 그중 중요한 건 심리적인 요소, '엄마의 손맛'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아직 국산 맥주의 질이 그리 좋지 못했을 때 레이블을 바꿔 치기 했더니 맛은 맥주 자체가 아니라 레이블에 의해 좌우되더라는 결론이었다. 하이네켄에 OB레이블을 붙여 놨더니 "국산? 별루야," OB맥주에 하이네켄 레이블을 붙였더니 "역시 명불허전(名不虛傳)이로구만!" 식이다. 소문난 집이래요의 '소문난'이라는 단어가 맛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즉 밑 칠을 해 준다는 얘기다.

어이하여 아내는 간장게장에 꽂혔나?

무언가에 꽂힐 때는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소위 "마들렌 순간" (Madeleine moment)은 셰프(chef)들 세계에선 널리 회자된다 한다. 차(茶)에 적셔진 마들렌(Madeline)-조가비 모양의 스폰지케이크- 한 조각이 혀에 닿는 순간 화자(話者)의 기억은 유년 시절로, 자기에게 극진하던 이모할머니(aunt Leoni)가 먹여주던 茶에 적신 마들렌의 기억으로, 가히 양자도약 quantum leap이라고도 할만한 시공을 뛰어넘는 이동을 한다는 거다. 이 無意志적 기억(involuntary memory)이란 현상은 후각과 미각(특히 후각)이 담당한다. 후각은 대뇌피질로 가기 전에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기관(해마, 편도체, 등)으로 직접 접속된다. 하여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지적으로)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 무의지적 기억이란 현상은 그 기억이 당사자에게 소중했을 때 더 잘 나타난다는 임상 연구, 그런 기억을 '소중한 파편(precious fragment)'이라 이름한다. 프루스트의 소중한 파편은 (aunt Leoni가 차에 담가 먹여주던) 마들렌 조각이었고, 셰프와 미식(美食)식 전문가들은 음식의 중요성이, 오랫동안 파묻혀 있던 기억까지 호출할 수 있는 그 위력이 요리인이 아닌 위대한 문호(文豪)에 의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소설(중의 하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고무돼 이 '마들렌의 순간'을 인용하고 또 인용한다.

아내의 사연은, 그녀 기억의 소중한 파편은, 서천 외갓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이오 때 서천으로 피난을 가 이 년간 있었다.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 부모님들은 서울로 수복, 아내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냈다. 아내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파라다이스였다. 할머니 등에 업혀 가던 시골길, 할머니가 암만 걸어도 항상 제자리에 있던 달. 할머니, 달은 왜 언제나 같은데 있어? 그 안온하던 할머니의 등. 지금도 아내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눈가가 촉촉이 젖을 때가 있다. 동네 아이들과 우렁이를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 함초롬히 젖은 채 물귀신 같은 모습으로 집에 나타난 사건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손녀가 있어야 할 곳은 우렁이들이 아들 손자 며느리 거느리고 서식하는 논두렁이 아니라 가나다라를 배워야 할 서울이라고 결정하셨다. 일학년 여름방학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울 아들네 집에 손녀를 반환. 이 삼일 뒤, 손녀가 깨기 전 새벽 열차를 타셨다. 당시 아내의 비통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재(不在)를 자각한 순간의 비통은, 만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들이 겪었을 당황함, 황당함, 적막감, 박탈감에 비기리라. 아마 아내가 그토록 그리는 건 할머니가 발라 주시던 간장게장의 주황색 알 그리고 간이 잘 든 살 이었으리라. 살을 바른다는 그 고통(?)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생략한. 하여 간장게장이 입에 닿는 순간 아내의 기억은 태평양을 건너 60여년 전 '소중한 기억의 파편', 할머니의 간장게장으로 양자도약을 감행하는 거다.

유기농 식품만 파는 한국 식품점에 '구경하러' 들렸다가 사단이 벌어졌다. 값이 아내의 눈 높이보다는 한참 위라 보통 때는 발걸음이 뜸한 집, 이를테면 내 사촌 제수가 딸을 출산했을 때 미역을 산 집이다. 즉 딸이 애나 나야 가는 집이다. 그런 집에 아내가 '구경하러' 들렸는데 거기 간장게장이 있었던 거다. 고급스레 포장이 돼있다. 한 팩에 두 마리다. 백불, '맛은 보장합니다'라는 주인의 말을 뒤로하고 아내는 분연(憤然)히 그 가게를 나섰다. 괘씸하다.

괘씸하지 않은가! 게 한 마리에 50불이란 건 말이 안 된다. 제철이면 다섯 마리에 이십 불 하는걸, 즉 한 마리에 4불짜리를 두 마리에 백 불? 터무니없는 가격, 비윤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걸 산다는 건 원칙과 신조에 어긋난다. 그래도, 한국까지 가서 먹으려던 건데 한 번 드셔 보면 어때? 당신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쳐요? 하는 약간의 경멸 끼가 어린 눈초리로 날 바라본다. 고작 게 두 마리에 거금이 나간다는 건 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 정도의 돈은 있으리라. 이건 배포의 문제다. 게 두 마리에 감히 100불이나 쓸 배포가 없는 거다. 하지만 손바닥만 한 에르메스 스카프는 군 소리 없이 400불 내며 사면서 (물론 선물용으로) 게 한 마리에 50불은 너무하다 한다면 배포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같다. 그래, 배포의 있고 없음도 문제가 아니라면 무얼까? 멀쩡해 뵈는 여자들이 엄마가 되면 기어코 획득하고 마는 후천적 形質, 소위 습성이란 것 때문 아닐까? 그렇다.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고 비윤리적이어서도 아니고 괘씸해서도 아니고 원칙에 신조에 어긋나서도 아니고 배포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저 습성일 뿐이다. 엄마가 되면, 애들 키우느라 아등바등, 세일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안방에 기어들어와 있는 후천적 형질, 습성일 뿐이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맞서는 이 강력한 저항은!

결국, 습성이, 찌든 일상으로 말미암은 습성이, 간장게장의, 간장게장의 소중한 기억의 유혹을 이긴 거다. 프루스트가 들었으면 통탄할 일이다. 기억의 그 소중한 파편을 무시하다니. 거기 어린 낭만을, 향수를, 과거에로의 여행을, 할머니를, 할머니의 그 안온하던 등을 포기하다니. 고무신 엿 바꿔 먹듯이 단 돈 백 불과 그 소중한 파편을 맞바꾸다니! 얼마나 메말라진 건가! 얼마나 메말라질 수 있다는 건가! 그러고 보니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본 지 한참 되는 것 같다. 섣부른 감상 같은 건 싸악 날려버린 마눌님, 여릿여릿했던, 항상 제자리에만 있던 달이 궁금했던 시절을 그리워할 줄도 알았던 우리 마눌님! 한때는.

*참고: 귀중한 파편만이 무의지적 기억을 되살리는 건 아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서처럼 끔찍한 기억의 파편(not so precious fragment)들도 무의지적 기억으로의 회귀를 강요한다. 그 끔찍했던 외상의 현장으로.

용(龍)에 대한 속담풀이

이덕숭 (60, 남가주)

2023년의 묵은 해가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해(음력)는 갑진년(甲辰年)으로 12 지간의 동물 가운데 용에 해당되는데 띠 색은 청색이어서 청룡(靑龍)의 해가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웅장하고 용맹함이 돋보이는 용띠를 맞이해서 용에 대한 속담을 소개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변변치 못한 가문이나 동네에서 의외로 훌륭한 인물이 나왔을 때 쓰는 말.

'용 가는데 구름 간다'

언제나 같이 다니며 늘 떨어지지 않을 경우을 이르는 말.

'용이 물 밖에 나면 개미가 침노한다'

한 그룹에서 세력을 부리다가 그 그룹에서 밀려 나와 세력 없이 된 경우.

'구슬 없는 용'

용이 구슬 즉 여의주가 없으면 힘도 쓰지 못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무런 쓸데없고 보람 없게 된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미꾸라지 천년에 용 된다'

무슨 일이든지 오랜 시일을 두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뜻을 이루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

'용 될 고기는 모이 철부터 안다'

후에 훌륭하게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다는 말.

'용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낫다'

크고 훌륭한 이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고 보잘것없으나 작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좋다는 뜻.

'잉엇국 먹고 용트림 한다'

작은 일을 큰 일인 체하며 남에게 거짓 태도를 보이고 행동하는 것.

'용 못된 이무기 방천 낸다'

이무기라는 놈은 용이 되려다 덕이 모자라서 용이 못되고 물속에 산다는 구렁이를 말하는데 되먹지 못한 것이 반드시 못된 짓을 한다는 뜻.

그리고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머리는 용으로 시작했는데 꼬리는 뱀 꼬리처럼 되는 것으로 시작은 근사하고 멋있게 했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선 후배 동문 가정마다 용의 해를 맞이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높이 치솟는 용처럼 모든 일에 강하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기 철(71, 남가주)

11. 이순신 백의 종군하다

선조의 이순신과 의병 반역 의심

1592년에 시작한 전쟁은 제2차 진주성 전투를 끝으로 일 년여 만에 비교적 조용해졌다. 마치 한국전쟁 때 일 년여 만에 휴전회담이 시작된 것처럼 400년 전에도 그랬다. 조선을 제쳐 놓고 명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분할하니 어쩌니 하며 종전 회담을 3년이나 계속했다. 중공과 미국도 그랬다.

그동안에 나라는 초토가 되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동원되었다. 죽어라고 일해서 수확을 해봐야 군량미로 빼앗겠다. 조선 병사뿐만 아니라 명나라 병사까지도 먹여 살려야 했다. 일본군에게 약탈까지 당했으니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가꾸지 않는 농토는 황폐화되었다. 거기다 전염병까지 돌았다. 굶어 죽는 사람, 병에 걸려 죽는 사람, 전사하는 사람 등등 아비규환이었다.

백성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나온다. 징비록, 명나라 기록, 조선 왕실 기록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백성들이 풀과 나무껍질을 먹고 살아서 산에 풀이 없고 껍질이 성한 나무가 없었다고 한다.

이순신도 군량미 부족으로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 고민했다. 거기다가 전염병으로 병사들이 죽어 나갔으나 병력 보충에 애를 먹었다. 이순신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고생했다. 이순신은 병영 안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상거래를 허락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영 주위로 모여들어서 안전하게 살려고 했다. 그러나 왕과 조정의 행태는 백성들의 아픔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조는 이순신과 의병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하여 이들이 얼마나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가는 다음 문제였다. 신하들은 나라의 장래나 정의로운 논공행상보다는 왕의 비위를 맞추어서 당파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했다.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선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선조를 매우 불안하게 했다. 한양에서 출발할 때 100여 명의 수행원이 다 도망가고 30명으로 줄었다. 많은 노비 출신의 백성들이 일본군에 합류했다. 임해군과 순화군이 명나라로 도망가려 하자 조선 사람이 이들을 잡아서 가토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선조는 국민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순신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의병의 선전

농민인지 군인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오합지졸이었던 관군이 연전 연패하고 있는 가운데 의병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번주(영주)만 굴복시키면 새로운 정복자에게 절대복종했던 일본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성의 장이었던 목사가 도주해도 백성들은 의병으로 저항했다. 백성들은 의병장에 복속되어 싸우거나 관군에 자발적으로 지원했고 의병과 관군은 힘을 합쳐서 싸웠다.

일본군이 함락한 성들을 수복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훈련원 부봉사 권응수와 정대임은 현지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영천을 되찾았다. 1592년 9월에는 경상 좌병사 박진은 권응수를 도와주고 군사 1만 명을 동원하여 경주성을 탈환했다.

이장손이 발명한 비격진천뢰는 경주성 탈환에 큰 역할을 했다. 굉음을 내며 성안으로 날라들어간 포탄은 축구공처럼 땅에 굴러다녔다. 일본군이 영문을 모르고 폭탄 주위에 몰려들어 이리저리 굴려보다가 갑자기 폭발하여 수많은 파편이 주위 일본군을 피격했다. 일본 병사들은 혼비백산했다.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전 재산을 털어 의병을 일으켰다. 항상 붉은 옷을 입어서 홍의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게릴라전과 관군과 합세하여 정규전에도 참여했다. 의령, 삼가, 합천, 창녕, 영산의 일본군을 섬멸했다. 전라도에서는 고경명, 김천일이 충청도에서는 조헌이 활동했다. 스님들도 의병을 일으켰는데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당 유정이 유명하다. 의병장에 대한 백성들의 선망은 점점 올라가는 반면에 선조에 대한 지지는 취약해져 갔다.

홍의 장군 동상 (경남 의령)

이몽학의 난

이몽학은 서얼 출신이었다. 양반 첩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서얼은 정실의 아들처럼 양반의 특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항상 불만에 차 있는 계급이었다. 1596년 7월, 그는 불만에 찬 백성들을 선동하여 충청도에서 난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몇 개의 고을(현)을 함락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홍주목사 홍가신의 계략에 걸려 난은 진압되고 이몽학은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몽학의 난으로 선조의 의병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이몽학은 "충용장 김덕령과 의병장 곽재우, 홍계남 등이 모두 군대를 연합하여 도우며, 병조판서 이덕형이 내응한다"라는 헛소문을 퍼트렸다. 선조는 진실을 파악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이를 꼬투리 잡아서 의병장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곽재우와 홍계남은 살아남았지만 김덕령은 처형되었다. 이덕형은 석고대죄 끝에 사면 되었다.

김덕령은 전라도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유학자이면서 무예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휴전 상태여서 괄목할 만한 공은 세우지 못했다. 도원수 권율은 그에게 경상도에서 왜군의 민간 약탈이 심해지자 김덕령에게 이들 토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전라도 의병이었지만 경상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의병은 단순한 민간인으로 조직된 군대라기보다는 관군과 조정의 관리를 어느 정도 받는 국가의 군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곽재우, 김덕령 등도 도원수 권율과 긴밀한 협조하에 움직였다. 이와 같이 전쟁 초기에 오합지졸이었던 조선 육군은 전쟁 일 년여 후에는 전투에 능숙한 군대로 성장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관군보다 의병이 더 우세한 현상이 발생했다. 왕과 조정은 이들의 반란을 경계했다.

선조의 원균 비호

백성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휘하에 강력한 수군을 둔 이순신 또한 소심한 선조에게는 두려운 상대였다. 선조는 원균을 부추겨서 이순신을 내치려고 시도했다.

1592년 4월 일본 군대는 배를 타고 부산에 상륙하여 부산성을 함락하고 육지로 진격했다. 만약 수군이 바다에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면 육지에서의 전투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조선은 남해의 수군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고 한양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좌우로 갈라서 편성했다. 경상 좌수사(부산)는 박홍, 경상 우수사(거제도 가배량)는 원균, 전라 좌수사는 이순신(여수), 전라 우수사(해남)는 이억기였다.

경상 좌수사 박홍은 일본 수군 함대가 구름떼처럼 몰려오자 기가 질려, 가지고 있던 판옥선 40척에 구멍을 내서 침몰시키고 식량창고에 불을 지르고 육지로 도망쳤다. 동래성으로 들어가 송상현과 합류했으나 몰려오는 일본군을 보고 다시 도주하여 북으로 피난 가는 선조를 찾아갔다. 선조는 그를 자위 대장으로 임명하여 임진강 전투를 지휘했으나 패배했다.

경상 우수사 원균은 거제도 가배포에 군선 73척을 가지고 있었다. 원균은 부산 가는 길에 있는 가덕도로 향했다. 도중에 까맣게 바다를 뒤덮고 있는 일본 군선을 보고 즉각 퇴각했다. 여러 장수들이 도망쳤다. 원균은 대부분의 전선을 침몰시키고 몇 명의 충복을 데리고 곤양으로 도망쳤다. 옥포 만호 이운룡 등이 싸우지 않으려는 원균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호남 수군에게 구원을 청하라고 충고했다. 부하 이영남이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문책 당할 우려가 있으니 이순신에게 원군을 청하여 싸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자 원균은 마지못해서 이순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명령 체계상 이순신 마음대로 임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군을 파견할 수 없었다. 조정에서 이순신에게 원균을 도우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지만 결국 1592년 5월 4일 이순신은 전선 24척과 협선 15척으로 경상 우수영 지역으로 출정했다.

원균은 전선 4척과 협선 2척을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과 원균은 도합 전선 28척과 협선 17척을 가지고 옥포 해전에서 승리했다. 원균은 전투 자체보다는 전과 올리는데 지나치게 열을 올려 이순신이 좋아하지 않았다.

옥포해전에서 승리한 공으로 이순신은 자헌대부, 원균은 한 등급 아래인 가선대부가 되었다. 이순신과 원균은 한산대첩 때까지 여러 해전에서 같이 싸웠다. 한산대첩 후 이순신이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어 원균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자 둘 사이는 극히 나빠졌다. 이순신은 남인인 유성룡, 권율과 친했고 동인 출신인 이원익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원래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으나 동인이었던 이산해는 원균 편이었다. 원균의 5촌 친척이었던 윤두수는 원균 편이었다. 북인들도 원균을 치켜세웠다.

원균은 12살 밖에 되지 않은 첩의 아들 원사웅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조정에 보고하자 이순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장계를 올렸다. 이후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화되었다.

선조는 "수군 여러 장수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니 그런 습관은 모두 버리라"라는 교시까지 내린 지경이었다. 소문이 자자하여 일본군도 알게 되었다. 급기야 선조는 진상 조사를 명했다.

선조는 원균을 충청 병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원균을 띠우고 이순신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충청 병사 원균의 실정을 비판하는 장계가 올라오는데도 왕은 원균을 높이 평가했다. 조정의 분위기도 이순신을 좋지 않게 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유성룡까지도 왕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선조가 왜 그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백성들이 크게 존경하지 않는 원균을 띠우고 신망이 높은 이순신을 깎아내리면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존망이 돋보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이중간첩 요시라의 간계

고니시 유키나와(소서행장)과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은 앙숙이었다. 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에게 잘 보이려고 극심한 경쟁을 했다. 고니시는 부하 요시라를 경상 우병사 김응서와 접촉하게 했다. 그는 조선말을 능숙하게 했고 조선 편인 것처럼 행동하여 김응서의 신임을 얻었다. 조선 측에서는 그에게 첨지 등의 직함까지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중간첩이었다.

일본의 재침이 임박한 어느 날 요시라가 김응서에게 말한다. "고니시 유키나와 님은 강화가 깨진 것은 가토라고 하시며 그를 죽이고 싶다고 분개하십니다. 그가 곧 쳐들어 올 터인데 제가 날짜와 장소를 일러 줄 터이니 조선 수병이 그를 즉각 공격하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은밀히 알려주었다. 김응서는 즉각 이 정보를 조정에 알려주었다. 물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나아가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이순신은 일본 측의 함정이라고 의심하여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눈치챈 원균은 조선 수군이 거제도 영등포를 출발하여 가덕도와 절영도(부산) 방면으로 나아가 가토에게 조선 수군의 위용을 보이면 일본으로 퇴각할 것이라는 소지의 상소문을 올렸다.

백의종군

이때 윤두수가 선조에게 이순신을 파직 시키자고 아뢰었다. 1597년 2월 6일 선조는 원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 다음 인수인계가 끝나면 이순신을 체포하여 압송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순신은 3월 4일 의금부에 구금되었다. 선조는 이순신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며 자세한 죄상을 밝히기 위해 국문을 명했다.

선조는 성균관 사성 남이신을 현지에 보내서 이순신에 대한 민심을 조사했다. 전라도 주민과 군사는 이순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이신은 가토가 7일이나 가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순신이 놓쳐 버렸다고 보고했다.

많은 조정 대신들은 이순신을 처형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착과 이원익의 간청으로 백의종군이 결정되었다.

효자 이순신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다

1593년 5월, 이순신은 충청도 아산에 사시는 어머니 변 씨를 전라 좌수영(여수) 근처 고음천에 이사하게 하여 보살폈다. 어머니는 당시에 79세였다. 아버지 이정이 그리 똑똑한 분이 아니어서 과단성 있는 어머니가 기울어져 가는 집안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순신은 어머니를 하늘과 같다고 할 정도로 존경했고 지극 정성으로 모셨다. 자랄 때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597년 4월 1일 구사일생으로 출옥 어 백의종군을 하기 위해서 경상도 합천으로 향했다. 합천에는 도원수부가 있었고 이순신은 권율 휘하에 아무 보직 없이 배속되었다. *백의종군은 일종의 보직해임이지 장군이 졸지에 졸병이나 평민으로 강등되는 형벌이 아니다.

옥문을 나서던 날의 심정을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옥문 밖으로 나왔다. 울적한 마음 한층 이기기 어렵다."라고 기록했다고 한다. 83세이신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옥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고향 아산으로 향했다. 배는 법성포에서 6일간 표류하다가 구조되어〈다음면에 계속〉

가나 단기봉사 보고

홍건 (70, 시카고)

에티오피아에서 5년을 봉사하고 시카고에 돌아와서 다음 사역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코비드 바이러스는 모든 계획을 멈추게 하였고, 그나마 어렵게 참여한 적은 한인 개척교회가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강한 방침에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지고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통해 집에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디 방송국의 설교를 듣게 되고 제한적인 대면 예배가 허락되면서 자연스레 무디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오르간 반주에 성가대의 찬양을 대하고 참신한 필립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도 하고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6월경에 교회에서 아프리카 가나에 단기 선교팀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한 계획을 알아보고 같이 갈 수 있는가를 타진하였다. 듣기로는 매년 1월 말과 7월에 의료팀이 가지만 내 전공이 방사선과(영상의학과)라는 말에 특별히 고려하여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가나의 임시 의사면허증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마침 무디 교회의 보안 담당을 하는 Noble Adgbli라는 분이 모든 준비를 해주어서 비자도 신청을 하고 비행기표를 대신하여 발권해 준다기에 괜찮으려니 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카고에서 런던 Heathrow 공항에서 바꾸어 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런던까지 가는데 직행을 하지 않고 Atlanta에서 한 번 더 바꾸어 타는 바람에 그것도 공항에서 한 시간 내에 다음 비행기편을 달려가 바꾸어 타는 곤경을 겪었고, 아슬아슬하게 가나의 Accra 수도 공항에 도착은 하였으나 수화물로 맡긴 두 개의 가방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 다음 날 시골 병원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 수도의 외곽에 빌린 Airbnb 집에서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저녁때 공항에 다시 나가서 다행히 도착한 짐들을 찾고 불평을 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지고 왔다.

마침 미국에서 가나를 간다는 소식을 알고 여러 사람이 미국에 살던 가나 현지인 Joseph 목사님에게 가져다 달라는 선물들을 전해 주어야 하기에 그분과 연락을 해서 아침에 찾아와서 모든 짐을 잘 전달해 주었고 마침 그분이 사는 곳이 내가 가야 하는 시골로 가는 중간이라기에 같이 병원에서 나온 Mark라는 병원의 모든 행정을 맡은 분이 운전하는 픽업트럭을 타고 복잡한 수도를 벗어나서 인접국가 Togo까지 연결되는 외길-그곳에서는 고속도로라고는 하나 우리 옛날 시골길 같은 도로-을 달려서 동쪽으로 향했다. Joseph을 가는 길에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내려주려고 하니까 가나의 전통 복장을 하나 사서 나한테 선물을 하였다. Mark가 계속 시골길을 달려서 가는 동안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번 주일에 자기네 교회에 와서 주일예배에 설교를 해 줄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아서 전에도 선교지에서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흔쾌히 응했다. 도착해 보니 말로는 호스텔이라고 하지만 작은 3층 건물에 2, 3층에 방이 다섯 개씩 있는데 손님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어서 나를 위해서 부엌에서 Agnes라는 현지인 할머니가 식사를 매 끼니마다 준비를 해주었다. 다행히 내가 묵게 되는 방은 3층 10호실이라 계단을 걸어 오르락 하지만 조금 높으니까 전망도 좋고 시원하고 모기도 아래층보다는 덜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았다. 방 천정에 달린 에어컨 바람이 직접 침대에 내려오지만 워낙 더웠으나 불평 없이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샤워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 더운물은 나올락 말락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런 색깔의 물이 나오고 샤워를 하고 나서 바닥에 보면 검은 작은 물체들이 가라앉은 것을 보면 전혀 소독이 안된 우물 물을 그냥 샤워 시설 관으로 보내는 것 같았고 변기 안의 고인 물도 항상 누런색이라 좀 기분이 언짢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꼭 병물을 사용하고 조심을 했다. 첫날은 별일 없이 잠을 자고 Agnes가 준비해 준 아침 식사, 빵과 계란을 들고 Mark가 약속한 시간에 와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다.

오기 전에 병원 이름이 IHDN Hospital로 알고 왔는데 와보니 이름이 바뀌어 EP Church International Mission Hospital로 바뀌었다. EP는 Evangelical Presbyterian의 약자로 1893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교회이다. 토요일이라서인지 병원이 거의 비어 있고 몇 명의 직원들과 입원 환자 가족만이 눈에 뜨일 뿐이었다. Mark가 차근차근 병원을 두루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광활한 주변의 땅에 홀로 우뚝 서있는 5층짜리 아파트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렌트를 내지 않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전기값까지 포함하여 살고 있었다. 병원을 일단 둘러보고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식당의 Agnes가 다음날 주일 설교를 해야 할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쪽지에 손으로 쓴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읽어 보니 주일 설교의 제목을 "거짓 가리킴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을 정하고 성경 본문 말씀을 세 군데를 골라서 지정을 해주었다. 이제껏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황하고 시계를 보니 설교를 해야 하는 17시간을 남기고 큰 숙제를 받은 셈이 되었다. 성경을 찾아보니 주어진 본문이 별로 마땅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찾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여야 했다. 저녁을 먹고 숙소 근처를 걸으면서 주변이 안전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6시가 되니 어둑어둑 해져서 빨리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별안간 정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밖을 내다보니 우리 숙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네의 모든 전기가 모두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양초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냥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행히 전기가 다시 들어와 몇 시인지를 확인할새도 없이 구글로 찾던 사항들을 계속하고 대강 설교 준비를 마치고 피곤하여 잠을 청하였다. 주일 아침에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교회에 예정된 9시에 가보니 수 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래된 건물에 2층 발코니에서 3면으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인데 불과 몇 명의 교인들이 있었고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원들과 함께 정문 밖에서 함께 잠시 목사님이 기도를 한 뒤에 찬양을 부르면서 입장을 하여 강대상 뒤의 의자에 안내를 받고 한두 명씩 나타나는 교인들이 차츰 자리를 메꾸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내 설교 순서가 되어 강단에 서고 보니 통역을 할 친구가 나이가 매우 젊고 신학을 전공한 것 같지는 않고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통역을 맡은 것 같으나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알지 못해서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가능하면 쉬운 단어로 또 두세 가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통역을 하는데 쉽게 하도록 배려를 해야했다. 성가대가 전통 기다란 북을 두드리면서 어린아이까지 같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은혜로웠다. 헌금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헌금함에 넣고 춤추듯이 찬양을 하면서 줄을 지어 나오고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최근의 홍수로 인하여 집이 물에 잠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해 특별한 구제 헌금을 다시 하게 되어 준비한 헌금보다 더 많이 하였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 숙소에 돌아와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Mark가 운전하여 조금 떨어진 해변가에 위치한 Keta라는 동네를 방문하여 Fort Prinzenstein라는 요새를 구경하였다. 역사적으로 1784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운 집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들을 임시로 가두어 놓고 가혹한 대우를 함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대륙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듯이 다루었던 정말 소름이 끼칠 현장을 목격하면서 신대륙을 개발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된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남자 노예를 가두어 두었던 지하 방에는 창문이 없고 문을 밖에서 잠그면 안에는 낮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방안에 쇠사슬에 묶인 노예들이 따로 변을 보는 시설이 없으므로 짐승 무리같이 묶인 채로 조금씩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변을 보고 그 위에 뒹굴었을 모습을 상상하면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월요일부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기계를 점검하고 나서 X-ray 방에 가서 Paul이라는 기사를 만났다. 그동안 특별한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익힌 기술로 환자들을 다루는데 지금은 늦었지만 X-ray 기사 학교를 주말 토, 일요일 이틀씩 공부를 하고 내년 2024년 11월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지고 온 Merrill's Atlas of Radiologic Position and Procedures라는 교과서 세 권과 pocket book을 병원에 기증을 하니 보물을 발견한 듯이 기뻐하고 환자가 올 때마다 책을 펼치고 들여다보고 그 책에 쓰여있는 대로 일일이 과정을 따라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더욱이 놀란 것은 기계가 아주 소형으로 배터리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응급환자를 다루는데 쓸 수 있는 기계를 전원에 연결하여 엑스레이 방에서 쓰는 것을 보았고 한국 회사가 만든 기계인데 찍은 사진의 품질은 상당히 좋아서 만족했다. 사진을 찍는데 얼마나 방사선 피폭이 되는지는 알 수 없고 브로크 벽돌 뒤에서 직접 방사선을 피하고 조심하는 것을 알았다. 일단 사진을 찍고 나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한 후에 crop도 하고 이미지를 편집을 한 후에 병원 컴퓨터에 다시 업로드를 해서 병원 어디에서든지 볼 수도 있고 영구 보존이 되고 다시 프린터에 연결하여 1시간씩 먼 동네에서 의뢰하여 보낸 환자는 프린트된 사진을 가지고 가게 되어 제법 그나마 엑스레이 기계가 없는 정부 병원이나 의사 오피스에서 보낸 환자를 돌보아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리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Ghana 출신 암 치료 전문 내과의사 Dr. Agamah와 상의하기를 아침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도합 하루 네 시간씩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컨퍼런스 룸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병원 이사장 Emma라는 현지인 여자가 와서 외래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일단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고 오전 강의는 취소하고 오후 한 시에 만나서 두 시간짜리 강의를 한 시간으로 축소하여 하루 두 시간씩 강의를 하기로 조정을 했다. 그리고 병원의 상태를 차츰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병원 전체에 현지인 의사가 Medical Practitioner라고 미국으로 치면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가 두 명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산과에서 수많은 임산부의 분만을 midwife 조산원(산파)가 받고 만일 정상 분만이 안되면 가정의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 그리고 구름같이 몰려드는 외래 환자나 응급실의 환자들은 Physician Assistant 로서 간호사 출신들이 치료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미국이나 외국에서 방문하는 전문의가 없는 평소의 환자 진료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았고 앞으로 현지인 전문의가 나오든지 외국에서 봉사자로 많은 의료진이 오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첫날부터 강의를 듣는 청중들이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을 하고 질문도 많이 하여 힘들게 준비한 강의를 보람 있게 진행하였고 미국에서 가지고 간 작은 초콜릿 등 스낵을 나누어주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Mark와 친해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창립된 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학과정과 MBA 과정을 마쳤으며 지금은 수도 Accra에 가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과대학 강의를 하루 종일 듣고 변호사가 될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사실상 병원장이나 마찬가지의 직함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책임 맡고 소소한 건축 과정 등을 다 관할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태안의 안흥량까지 왔다. 그러나 장군의 어머니는 풍랑에 못 견디고 사망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이순신은 이미 아산의 해안포에서 어머니를 마중 나와 있었다. 장군은 그날의 심정을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한다.

정유 1597년 4월 12일 맑음.

"일찍 식사 후 어머님을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나갔다. …. 얼마 후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였다.…"

4월 19일 이순신은 어머니의 상도 치르지 못하고 재촉하는 금부도사와 함께 백의종군의 길을 떠나야 했다. 이순신은 그날의 애절한 마음을 난중일기에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전에 하직을 고하고 울부짖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 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랴. 어서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이순신은 경상도 합천에서 도원수 권율 감시하에 백의종군을 하게 된다. 1597년 6월 2일에 시작된 백의종군은 7월 15일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고 전사하자 이순신이 삼도 수군통제사로 보직이 복권된 7월 18일에 끝났다.

〈전면에서 계속〉 외부 업자를 고용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병원 직원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고 한다. 병원이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Memorial Garden이라는 묘지가 뒤쪽에 있는데 설립자인 Dr. Agamah의 부모가 매장된 곳을 보았다.

현지 의료진들이 비싼 주택에서 살면서 출퇴근 하지 않게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지어서 무료로 살수 있는 후생 시설이 된 것을 보았고 덕분에 응급환자를 금방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5층에 3베드 룸 짜리 큰 방이 건축 중인데 만일 미국에서 의사가 온다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고 나같이 혼자 오는 방문객은 그냥 원 베드 짜리를 줄 텐데 아직 건축이 진행 중이라 내가 병원 바깥의 호스텔에서 묵게 된 것을 알았다.

미리 부탁을 받고 수요일 아침 7시 반에 병원 컨퍼런스 룸에서 의료진들이 모여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경건한 시간에 내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의 말씀을 전했다. 이때는 모두 영어를 알아듣는 청중이었기에 통역이 필요 없이 원만히 진행이 되었고 끝나고 인사의 말씀을 나누었다. 아침에 다시 환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강의를 뒤로 미루고 오후에 복부 Abdomen 강의를 했다. 미국에서 올 때에 가방 두 개 50파운드씩을 최대한도까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모자 와 볼펜 등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고 간식을 조금씩 강의할 때 마다 나누어 참석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작은 성경 책은 엑스레이과에서 사진을 찍은 환자에게 전도를 한 후에 나누어 주었다.

하루는 고관절 엑스레이를 보니 골절이 된 후 오래되고 뼈가 사라져 버리는 정도까지에 이른 환자를 보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여 하는 수없이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후 간절히 기도를 하여 주었다. 그리고 하루는 가슴 엑스레이에 폐렴이 심하고 흉수까지 찬 어린아이를 보고 응급실에 가보니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호흡하게 함으로 금방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간절히 위하여 완쾌 되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퇴원을 한 것을 알았다. 산부인과의 산파들의 역할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을 알고 연일 그분들을 위하여 초음파 강의를 하여 주고 질문을 답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스케치북을 꺼내서 짬짬이 틈을 내서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환자들과 보호자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 등을 사진을 찍는 대신 스케치로 기록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따라다니며 구경을 했고 자기를 그려 달라고 자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음파 기계는 portable로 작은 기계는 스크린이 망가져서 큰 스크린에 연결하여 보려고 했으나 종래 고치지 못해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산과 옆방에 있는 한국산 초음파 기계는 좋은 해상력과 여러 복잡한 프로그램 등이 깔려 있어서 내가 쓰기에는 편했으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일부 제한된 의사나 조산원만 사용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았다. 강의를 열심히 들은 조산원 Benedicta가 강의를 잘 들었다는 Certificate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초안을 하고 IT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병원 밖에 프린트하는 상점에서 프린트를 해와서 내가 비용 400Cedi(약 $ 35불 정도)를 부담하여 10시간 강의를 마쳤다는 예쁜 증서를 마련하여 주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미국 의사가 와서 연수 교육을 해주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경력이 될른지 모른다.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는 비교적 wifi가 연결이 잘 되었지만 Mark가 따로 wifi 기계를 빌려주어서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잘 사용하였다. 목요일 밤에는 시카고의 Pregnancy Center의 Board Meeting을 Zoom으로 밤늦게까지 참여할 수 있었고, 금요일에는 한국기독의사회 밀알 기도모임을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날 안양 샘병원 원장 박상은 장로가 베트남 다낭을 방문하여 의료선교를 하는 중에 참여하여 나는 아프리카에서 박 원장은 베트남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얼굴을 보면서 선교지 이야기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박상은 원장과의 마지막이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 그다음 날 베트남 다낭 해변에 나가 휴식을 취하던 박상은 원장이 심장마비로 의료진이 CPR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가 30분 이상 계속 CPR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소천하고 내가 가나에 있는 동안 박 원장의 부인과 가족이 베트남으로 급히 가서 화장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뤘으니 참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고 특히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있었던 내가 그런 일을 당하였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도 해보고, 나한테서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집사람은 한잠도 못 잤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특히 박상은 원장은 내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그의 형 박재형 교수는 서울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로 같이 에티오피아의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금은 에스와티니에서 풀타임 의료선교사로 사역을 하므로 나하고는 그 집안도 잘 알고 지내는 터라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병원에서 마지막 일을 하는 날 그동안 기지고 온 모든 선물을 탈탈 털어서 모두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 신고 온 운동화도 엑스레이 기사 Paul에게 벗어주고 가지고 간 슬리퍼를 신고 돌아올 준비를 하였다. 그동안 Accra를 비롯하여 가나 북쪽 지방들을 여행하면서 플라스틱 제품 재생공장 프로젝트를 답사하고 온 Kevin과 Noble이 토요일에 우리 병원으로 온다고 하였고 병원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이므로 나는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재래시장을 구경하기로 작정하고 아침을 먹자마자 나가서 양, 염소, 닭, 오리 등 짐승을 파는 데부터 시작하여 옷가지와 여러 잡화를 파는 시장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스케치도 하고 작은 카메라로 스냅 사진도 찍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도착한 대원들과 마지막 점심을 같이 하고 오후에는 최근에 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 교인들에게 구제품으로 전해 주는 메트레스 25개, 쌀 25포대, 조리용 기름 25병 등을 전해주는 식을 교회 목사관인지 사무실 같은 마당에서 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 그 후에 늦었지만 병원을 찾아가서 현재 건축 중인 병리학과 빌딩과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만든 작업장 겸 창고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범람한 물이 넘실거리고 픽업트럭의 반이 물에 잠기는 길을 간신히 지나서 외장 공사를 다 마치고 내장 공사를 기다리는 클리닉 건물을 찾아갔다. 미국에서 의료팀이 오면 여기에서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무료 모바일 클리닉 이동진료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 건물 주위의 땅이 모두 병원 소유인데 농부들이 임시로 양파 재배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6살 정도 되는

사내아이가 옆에 있는 코코넛 나무에 원숭이같이 재빠르게 올라가서 열매를 따서 밑에 있는 아버지한테 던져주었다. 그 열매를 우리를 위해 원주민 칼 마셰티로 잘라서 주니 시원한 쥬스는 그대로 마시고 속에 있는 열매는 손가락으로 파서 뜯어 먹으므로 요기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나서 늦게서야 출발해서 Accra에 도착 했을 때는 이미 밤 9시 반이 되었고 늦었지만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깨끗한 물로 샤워도 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방에서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주일에 다른 대원들이 중요한 회의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기에 나는 Accra에서 조금 떨어진 Tema라는 곳에 위치한 가나 한인교회(Korean Community Church of Ghana)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미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연락을 한 후에 미국의 Uber와 마찬가지인 Bol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를 불러서 타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처음 폰으로 나온 금액이 36 Cedi(약 3 달러 가량)였는데 50 Cedi 지폐를 주니까 잔돈이 없다고 통째로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없이 그냥 주고 내려서 교회에 들어가 앉으니 미리 연락을 드린 이태열 장로님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고경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성찬식에도 참여했다. 비교적 큰 본당에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참석한 것을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 많은 교인들의 자녀가 커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갔고 나이 많은 사람은 은퇴를 하고 떠났고 후속으로 새로 오는 한국사람이 없다고 한다.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에서 짜장밥을 오랜만에 김치와 함께 먹으며 목사님과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교회를 떠나 이태열 장로님 댁에 잠시 들려 쉬다가 숙소까지 데려다주어 편하게 돌아왔다.

다음날 월요일에는 오전에 Theovision International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설립자인 Thedore Mensah Asare라는 분과 아들을 만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의 여러 종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 많으므로 성경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효과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을 배우고 큰 감명을 얻었다. 바로 옆의 클리닉 건물을 방문해서 아이를 분만하는 Maternity와 약국과 검사실 등을 둘러보고 다음에 오면 자기네 클리닉도 도와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오후에는 번화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다운타운 최신식 빌딩에 있는 Cybele Spring Rock이라는 Energy 회사를 방문하고 Beatrice Mensah Tayui이라는 회사 여사장을 만났다. 넓은 사무실에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직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등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유명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한 경력도 있는 여자로서 모국인 가나에서 에너지 회사의 총수로 활약하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분의 해박한 경제 및 정치의 식견과 앞을 내다보는 비젼 등이 정말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Kevin 이 앞으로 하려는 사업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었고 같이 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드디어 마지막 밤도 정전이 되어 핸드폰 충전을 못 해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충전을 계속했다. 가나에서의 마지막 아침 경건의 시간은 내가 설교 말씀을 하고 찬송가도 같이 불렀다. 아침 식사 후 Tema 항구에 있는 보세 창고들을 둘러 보고 항만 관리소장 같은 분을 찾아갔는데 Kevin이 그 책임자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나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Tema 항구의 넓은 광경을 스케치를 했다. 그리고 나는 기회가 있을 때 말라리아의 치료제 Coartem 80/480라는 약을 6알이 들은 갑 두 개를 샀다. 물론 우리가 오기 전부터 말라리아 예방약을 들기 시작하여 매일 한 알씩 먹었고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먹었지만 하도 모기들한테 뜯겼기 때문에 만일 말라리아가 걸려서 감기 증상 같은 것이 나면 미국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비싼 약을 미화 10불 정도에 구해서 가지고 와서 만일을 준비했다. 물론 증상이 없으면 그냥 버려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묵었던 Airbnb에 돌아와서 가나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가지고 있던 현지 지폐 모두를 식사를 준비해 준 Mary와 운전을 수고해 준 Tony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고 빈손으로 공항을 향하였다. British Air 에서 기탁할 짐을 재보니 빈 가방 두 개가 달랑 저울에 올라가니 직원도 의아해하고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보니 Economy 석 뒷자리에 현지인 두 명 사이 중간에 앉은데다가 오른쪽에는 뚱뚱한 여자가 앉아서 꼬빡 6시간 정도 꼼짝도 못 하고 영국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런던 Heathrow 공항에서 터미널을 바꾸는데 내 캐리온 가방이 걸려서 한참 실랑이를 했으나 결국 아무 일 없이 통과하고 5시간 기다리는 동안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스케치를 했더니 웨이트리스가 사진을 찍어 커피 만드는 Avinash 라는 친구에게 보여주니 감사하다고 커피 위에다 크림으로 내 얼굴을 그려서 공짜로 대접하는 바람에 기다리는 동안 심심치 않게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마지막 시카고로 돌아오는 Belgium Air에는 빈자리들이 많아서 비교적 편하게 8시간 정도 쉬면서 여행을 했고 시카고에는 집사람이 공항에 나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Kevin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는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보니 가나 병원의 Paul이 환자의 가슴 사진을 보내고 판독을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내 이멜 주소를 아는 이상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언제든지 나한테 보내서 판독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그 친구로서는 좋겠으나 나는 항상 응급 환자가 있으면 도와주어야 하니 이번 가나 여행으로 얻은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2023-24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전경배 52대 회기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950 나수섭 1954 김갑균 이동식 1956 박상기 서상철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박용화 박호현 류치열 문석면 송세엽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최창송
1959 강상진 김용덕 나길진 서경화 신한수 오형원 이교락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한달수 한성업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창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오신중 이광준 이덕숭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최홍락 한성수
1961 강창욱 곽동린 김성준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김학철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박호성 안창현 이동해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회백 장성환 정두현 조은순 진창건 최용성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1962 김석식 김익현 김한종 김호균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찬형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이태봉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Mrs. 이영웅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현철 김충열 노인규 김태형 김택수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이병준 이수인 이숭현 임춘수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장세곤 장인호 정관호 조한원 진병학 추재옥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라찬국 송원길 신두식 양운택 오수황 오유섭 유광현 윤홍기 이정은 이정필 이주영 이중오 이재풍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1965 구경회 김건언 김덕진 김욱현 백길영 손광호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의 이재진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원민 한재은 황규정
1966 김용재 김은한 김의신 김진호 김충규 이명희 이영일 이인수 장한교 조규웅 조관상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영철 김인귀 김태웅 노여수 문경웅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육태식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우용 이준식 이정화 이태안 전영성 최무웅 최승웅 한영수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정웅 김재관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송창호 신용계 서윤석 안긍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상훈 이한흥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홍광신 Mrs. 황종숙(고 황훈규 부인)
1969 김병오 김윤성 김중권 김창남 도상철 서 량 신영찬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육순재 윤호윤 이용환 이충호 전덕성 정한규 지승남 임웅규 천양곡 최종일 최종진
1970 문성길 방준재 박홍식 오석일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홍 건 최원일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효순 김 훈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정자 서상헌 오동환 오상현 이남수 이상천 이원택 이종준 이종일 장 철 정인용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이신재 이철재 장병호 정진우 정희현 황용규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노인규 문대옥 민인기 박진섭 방병기 서인석 심완섭 오인환 이계석 이인철
1974 권철수 구재훈 유영준 임자은
1975 김자억 김원정 박인영 전경배 한민우 한 일
1977 김동훈 박일우 1976 김정아 한승신
1978 허경열 1980 박남훈
1983 전원일 1984 서귀숙 정희국
1985 김자성 1994 안상훈
1999 한효숙 2001 김민정 장세권
2002 최태웅 2008 박종한

GREEN PROJECT FUND

권기홍(60)	500	이종석(60)	200	차재철(68)	75	박진섭(73)	200
서인석(73)	100	박인영(75)	150	전경배(75)	10,000	김명호(75)	3,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박남훈(80)	300	서귀숙(84)	100
장세권(01)	500	최태웅(02)	100				

CHARITY FUND

이종석(60)	175	박승균(61)	100	김성준(61)	100	이기범(63)	375
한광수(63)	175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100
최영자(66)	200	강명식(67)	175	차재철(68)	100	강창홍(71)	75
배성호(71)	175	문대옥(73)	375	민인기(73)	200	이인철(73)	1,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8)	100				

SCHOLARSHIP FUND

강상진(59)	300	권기홍(60)	500	박명근(60)	250	임필순(60)	200
김성준(61)	100	황현상(61)	100	김태웅(63)	11,000	한광수(63)	300
한기현(63)	375	장세곤(63)	350	이재풍(64)	150	차재철(68)	100
최영인(65)	100	김진호(66)	100	이영균(67)	200	이건일(68)	125
오석일(70)	150	김일영(71)	100,00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300
서정자(71)	350	이종준(71)	175	이남수(71)	75	서정자(71)	350
김천일(73)	100	문대옥(73)	200	박진섭(73)	200	심완섭(73)	100
김자억(75)	5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한효숙(99)	75
Mrs. 김공자(고 김국민 '60 부인)		5,000		Mrs. 황종숙(고 황훈규 '68 부인)		5,000	

GENERAL DONATION

서상철(56)	175	김석희(58)	200	문석면(58)	150	최창송(58)	1,000
정태진(59)	75	오형원(59)	50	최종진(59)	225	한성업(59)	75
권기홍(60)	500	강창욱(61)	50	김화섭(61)	100	장성환(61)	100
진창건(61)	100	한수웅(61)	225	한혜원(61)	225	김석식(62)	50
박찬형(62)	100	이상원(62)	50	권영조(63)	500	김태웅(63)	1,000
송용덕(63)	300	신경호(63)	50	장인호(63)	75	진병학(63)	100
김용두(64)	75	양운택(64)	200	최준희(64)	300	정길화(65)	100
채도경(65)	100	한재은(65)	225	김진호(66)	100	조관상(66)	50
이인수(66)	100	김성철(67)	150	이소희(67)	425	한영수(67)	75
김영남(68)	100	김희주(68)	100	이상훈(68)	175	홍광신(68)	100
차재철(68)	100	김중권(69)	200	도상철(69)	125	서 량(69)	375
윤호윤(69)	100	이용환(69)	100	전덕성(69)	225	문성길(70)	100
송요준(70)	100	홍 건(70)	100	김유식(71)	75	박동수(71)	100
오동환(71)	100	이상천(71)	500	장 철(71)	75	장병호(72)	100
나두섭(73)	200	김정용(73)	75	김천일(73)	100	문대옥(73)	300
방병기(73)	100	권철수(74)	100	유영준(74)	125	김원정(75)	100
한민우(75)	125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김동훈(77)	75
전원일(83)	75	서귀숙(84)	100	김자성(85)	100		

AASCDTF DONATION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2023 DIRECTORY DONATION

김갑균(54)	50	서상철(56)	100	송세엽(58)	75	김용덕(59)	25
권기홍(60)	500	임필순(60)	50	이종석(60)	200	한성수(60)	75
강창욱(61)	500	이재승(61)	150	정두현(61)	100	김화섭(61)	50
황현상(61)	175	김택수(63)	25	장세곤(63)	50	송용덕(63)	50
김용두(64)	100	권정덕(64)	200	신두식(64)	100	이재풍(64)	100
이한중(65)	50	한재은(65)	75	채무원(65)	300	김진호(66)	100
조의열(66)	100	최순채(66)	100	장한교(66)	75	유진일(67)	25
김진홍(68)	75	서윤석(68)	1,000	안긍환(68)	75	이건일(68)	50
차재철(68)	100	방준재(70)	500	김성환(71)	1,000	오동환(71)	100
하준영(71)	75	서정자(71)	50	오용호(72)	250	김천일(73)	50
나두섭(73)	200	노인규(73)	50	송정자(73)	50	권철수(74)	100
유영준(74)	5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Mrs. 허정숙(고 허선행 '64 부인)		200		센터 메디칼 (안우성 76)		10,000	

SNUCMAA 2023-2024 Local Chapter

Greater NY	한민우 (75)	tinahan34@gmail.com (201) 957-9064 (201) 226-9336
Central NY	임웅규 (69)	uklim00@gmail.com (315) 245-3659
Western NY	민인기 (73)	inks@msn.com (716) 440-2395 (716) 759-6116
Northern NY		
Greater Philadelphia	김영남 (68)	namkim7931@gmail.com (215) 778-9794 (215) 616-2111
VA & WDC	서윤석 (68)	younseokseo2004@gmail.com (419) 234-4154 (703) 753-1798
Northern OH	이계석 (73)	keslee@gmail.com (216) 218-7348 (440) 449-7239
Central OH	최영철 (71)	ycchoy@hotmail.com (614) 406-4156 (614) 406-4156
Southern CA	김자성 (85)	jasungkim@hotmail.com (213) 210-4429 (213) 797-5953
Northern CA	조은순 (61)	escho61@gmail.com (585) 957-2774 (415) 682-9757
Michigan		
Greater Chicago IL	김준우 (82)	Pjoonwookim@sbcglobal.net (847) 482-0566 (847) 223-6330

시계탑 원고에 대한 안내 말씀

우리의 시계탑에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내용은 지부소식, 수필, 산문, 기행문, 독후감, 시, 사진작품,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자랑, 경험담,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 등 모두 환영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인 사항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고는 길이가 1면을 넘지 않는 분량입니다. 만일에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편집회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우리 동창회 website로 보내질 것입니다. 특히 사진은 꼭 필요한 몇 장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시계탑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원 여러분들의 눈이요 귀요 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보물입니다. 이 귀중한 시계탑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안내말씀을 따라 주시면 편집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학년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 원고는 email로 혹은 육필의 경우는
*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 Seok Seo,M.D.
15727 Rothschild Court, Haymarket, VA 20169
Tel: 419-234-4154
E-mail: younseokseo2004@gmail.com / snucmma@yahoo.com